

# 하나님의 말씀

관능적인 사랑 - 결혼 - 책임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 목차

2461 부도덕함. 기록되지 않은 법 (불문법).....	4
2480 세상적인 태도. 단지 사랑이 구원한다.....	5
관능적인 사랑.....	7
4674 신성의 근본은 사랑이다. 잘못된 사랑.....	7
0873 감각적인 사랑.....	8
1459 사람들 사이의 사랑.....	9
2473 육신의 정욕. 세상을 향한 욕망. 사랑을 행함.....	10
2778 세상적인 쾌락의 형태의 유혹.....	11
3310 사랑. 잘못된 사랑과 신적인 사랑. 인간들 사이의 사랑이 깨어나게 하는 일.....	12
부부.....	14
1021 사랑의 일대 일의 관계. 쉬운 이 땅의 길.....	14
4357 결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14
4655 “하나님이 함께 하게 한 것을 분리하지 말라” 하나님의 축복에 인한 결혼.....	15
4834 하나님 앞에 올바른 부부.....	16
6940 모든 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결혼.....	17
출산.....	19
0850 감각의 중독. 성교. 목적.....	19
2795 후손을 얻으려는 의지. 기다리는 혼들.....	20
4979 십계명중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계명.....	21
7010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가운데 아이를 낳는 일이 불신의 원인이 된다.....	23
유전과 닮는 일.....	26
2775 육신을 입는 일. 충동. 이전의 단계.....	26
1933a 이전 단계의 성향이 성격을 정한다.....	27
1933b 유전. 성향. 부모.....	28
2078 유전이론.....	29
2321 기질. 이전의 단계에서 가졌던 충동.....	29
5257 의지는 성향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 정해진다.....	30
5207 친척관계라는 느낌에 대한 설명. 혼의 입자.....	31
8306 호감과 혐오감.....	32
자녀 교육.....	35
2443 자녀가 믿도록, 하나님의 도움으로 키우는 일.....	35
3607 자녀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일. 의지.....	36

0428 410 번 게시에 대한 설명.... (존재의 재형성.... 창조하는 영들의 무리.... 문제들....).....	37
7189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영적인 동행.....	37
책임.....	39
2536 교육자의 책임. 진리를 향한 사랑.....	39
7149 부모와 자녀의 책임.....	40
8496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만 한다.....	41
6127 자기 자신과의 싸움. 정욕과 욕망을 극복하는 일.....	43
6311 올바른 사랑은 생명이다.....	44

부도덕함. 기록되지 않은 법 (불문법).

B.D. No. 2461

1942년 8월 30일

**전** 반적인 부도덕이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시대를 동반한다. 이는 영적인 침체에 대한 증거이다. 사람들이 더 이상 이웃사람들의 느낌에 대하여 어떠한 배려도 하지 않으며 이웃사람들을 대하면서 자신에게 어떠한 강요도 하지 않는다. 미풍양속과 깊은 도덕이 없는 세대는 종말을 맞이한다.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기 힘들어 한다. 왜냐하면 예의 바름을 단지 사람들의 장식물로만 여기고, 시대의 모든 흐름에 따라 모든 충동을 만족시키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미풍양속의 법은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만 한다는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이 이런 사람들의 관점을 더 강하게 만든다.

사람들에게 예의 범절의 근거한 기초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정해진 사회적 질서 안에 살게 해주는 어떤 법도 자신의 원칙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 민족은 절대로 유지될 수 없고,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이는 기록되지 않은 법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사람들로 부터 인정을 받은 법이다. 왜냐하면 모두 다 이 법을 꼭 필요한 것으로, 그리고 이 법의 축복을 깨닫고, 인간적인 질서를 위해 반발하지 않고 순복했기 때문이다.

이런 법이 갈수록 더 잊혀지고 있거나, 또는 사람들이 알면서도 이를 버렸다. 왜냐하면 이 법규들이 충동을 따라 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일어난 영적인 성장의 퇴보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 사람이 더 충동적이 될수록, 그가 하나님을 덜 추구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세상을 갈망한다. 다시 말해 육체를 기쁘게 하는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고, 육체 때문에 이웃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다.

이 결과는 사람들이 절제 없이 이 땅의 삶을 즐기도록 인도하는, 자신의 정욕을 충족시키게 하고, 죄악된 삶을 살게 하는 영적인 세력에 빠지는 것이다. 이 영적인 세력은 이런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기록되지 않은 법에 항상 점점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제한을 두지 않는 가벼운 삶에 빠져 살게 만든다.

이런 세상 기쁨에 대한 자세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육체가 요구하는 것은 항상 혼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람들이 품위와 선한 관습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을 추구하는 일을 어떤 주저함도 없이 조롱하고, 놀린다. 각각의 사람들의 관점을 존중하지 않고, 대적하는 것으로 여기고, 이로써 자주 가장 몰염치한 방식으로 거부한다. 왜냐하면 도덕이 사라지는 일과 영적인 타락은 같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깨어났다고 말들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깨우쳐지지 않았다. 이들은 영적인 성장에 대해 말하지만, 그러나 훨씬 퇴보한 상태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성장을 혼의 성장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으로 이해하고, 그럴지라도 그들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추구할 만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벼운 생활을 촉진시키는 새로운 도덕을 세우고, 이것을 자신들의 이상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므로 옛 법을 무효로 만드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 질 것이고, 사람들은 이에 따라 행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혼의 성장을 이루게 할 수 있는 덕성이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대한 모든 기준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세상적인 태도. 단지 사랑이 구원한다.

B.D. No. 2480

1942년 9월 21일

**세**상적인 태도는 혼에 가장 큰 위협을 준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태도는 영적인 추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는 육체를 생각하는 일을 지원한다. 다시 말해 인간의 의지와 생각과 느낌이 단지 육체에게 모든 안락함을 주는 일에 집중된다. 결과적으로 혼은 자신 안에 있는 영을 돌보지 못하고, 영적인 존재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혼은 자신의 더 높은 성장 과정에서 멈추거나, 또는 육체적 욕망이 우세해지고, 사람이 점점 더 세상을 향하게 되면, 혼은 퇴보를 한다. 왜냐하면 영의 나라가 절대로 이 땅의 나라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혼의 세속적 성취는 절대로 구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절대로 위를 향해 동시에 아래를 향해 걸을 수 없다. 그는 항상 다른 하나를 희생하면서 하나를 행해야 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점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의 모든 추구는 육체의 안녕을 위한 것이고, 육체의 욕망이 성취되면, 혼은 굶주려야만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외적인 의식을 수행할 때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사람들이 어떤 오류에 빠져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일은 단지 자신을 생명력이 있게 믿고, 자신의 말씀을 생명력이 있게 믿는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야만 한다. 이런 말씀은 모든 세상적인 것의 무상함을 가르치고,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육체의 죽음 후의 혼의 상태에 대한 깨달음을 준다. 죽은 후에 혼의 상태를 빛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땅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모든 세상적인 것은, 다시 말해 사라지는 것 들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말아야 하고, 단지 쇠하지 않는 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혼이 육체적 욕망에 의해 혼과 혼 안의 영과 연합하는 일에 방해받을 동안에는, 혼은 성장해 나갈 수 없다. 혼이 혼 안의 영과 연합하는 일은 단지 사랑을 행함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

자신의 육체보다 이웃에게 더 많이 배려해야만 한다. 사람은 자신을 뒤로 하고, 자신의 이웃 사랑을 사랑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단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이 땅에 묶여 있어, 이 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이 그에게 어렵다. 자기사랑은 높이 성장하는 일에 가장 큰 장애물이다. 왜냐하면 자기 사랑은 이웃 사랑의 반대이고, 단지 이웃 사랑이 진정으로 구원해주고, 단지 이웃 사랑이 혼에게 영적 성장을 의미하고, 단지 이웃 사랑이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이 결여된 모든 행동은 순전히 형식적인 행동이고, 내적인 가치가 없고, 혼의 변화에 최소한 기여도 하지 않는 외적인 행동이다. 단지 사랑이 구원한다. 사람이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그의 혼은 영원히 버림을 받는다.

아멘

신성의 근본은 사랑이다. 잘못된 사랑.

B.D. No. 4674

1949년 6월 21일

**사**랑은 가장 숭고한 느낌이고, 가장 숭고한 느낌으로 머문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이 사랑으로 인식하는 모든 것이 사랑이 아니다. 왜냐면 사랑이 가장 숭고한 느낌이라고 할 수 없는 잘못된 방향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원칙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실제 거룩한 하나님의 본질이고, 어떤 정의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자 성품이고,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큰 힘이다. 이 힘이 모든 것이 생성되게 했다. 왜냐면 사랑은 창조적이고 살아있게 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의 원초적인 성품이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에서 다시 발견할 수 있고 특히 사람 안에서 완전히 확산되어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발산된 것이다.

올바른 사랑은 일으켜 세우고, 생명과 모든 힘의 원천인 영원한 사랑과의 연합을 추구한다. 이를 이해하는 일은 단지 그들 안에서 올바른 사랑을 발전시킨 사람들에게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이해할 수 없게 개념으로 머물게 된다. 왜냐면 사람들이 심장 안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탐욕에 "사랑"이라는 이름을 부여한다. 그러나 그런 탐욕은 단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한 사랑이고, 사람에게 탐욕스럽게 보이는 것들과 연합하려는 욕망이다. 그러나 그런 잘못된 사랑은 힘을 주지 못한다. 반면에 올바른 사랑은 사랑 자체 안에 힘이 있다. 이를 단지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

왜냐면 단지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이런 사랑의 힘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고, 올바른 사랑이 발산되는 영의 나라와 연결을 추구하고, 사랑의 힘을 사랑을 행하기 위해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의 힘이 사랑을 행하도록 자극하지만 절대도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추구한다. 이런 점에서 사랑의 힘이 영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

사랑의 힘은 모든 일을 성사시킬 수 있다. 누구든지 자신 안의 사랑을 최고로 확장되게 하는 사람은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왜냐면 그가 어떤 일도 불가능하지 않은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런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사랑하려는 의지가 단지 적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런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숭고한 느낌을 알지 못하고, 전혀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행복하게 해주려고 시도하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을 충만하게 받게 하는 영원한 사랑과의 연합이 단지 희귀하게 이뤄진다.

자체가 사랑인 하나님의 원래의 성품을 닮는 모든 일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는 일은 쉬운 일이다. 왜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일부이고, 단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이런 의지를 바꾼다면, 즉 이전

에는 그가 이루지 못했던 자신을 사랑으로 형성하는 일을 이룬다면, 그가 원래 소유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잃었던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얻는다.

하나님의 생각하는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고, 자신이 원래 초기에 실제로 누구였는 지를 깨닫고, 자신을 그에 합당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면, 그는 원래의 힘의 원천에 접근한다. 왜냐면 영원한 사랑이 그의 의지를 깨닫고, 그를 자신에게 다시 이끌기 때문이다. 사람은 또한 사랑을 행한다. 왜냐면 힘의 공급이 사랑을 행하는 일로 나타나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사랑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랑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 이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일을 의미하고, 모든 충만함으로 힘을 받는 일을 의미한다.

사랑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숭고한 느낌이다. 왜냐면 이런 느낌은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의 심장 안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발산해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직 물질로 여길 수 있는 이 땅의 것을 향하는 사랑은 힘을 주지 않고, 힘을 빼앗아 가고, 사람에게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잘못된 사랑이 갈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삶의 힘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그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잃게 된다. 왜냐면 그가 얻는 것은 헛된 것이고, 그가 자신의 삶의 힘으로 자신을 위해 만들어야 할 헛되지 않은 가치를 가진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사랑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 (1949년 6월 22일) 진정한 사랑은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베푸는 사랑이다. 사랑은 나눠주고, 받기를 원하지 않는 가운데 더 많이 나눠줄수록 지속적으로 받는다. 올바른 사랑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역사하고, 그러므로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게 돼야만 하고, 이로써 항상 승리할 것이다. 즉 사랑은 다른 어떤 힘이나 권세보다 강하고, 악을 정복하고, 분노를 달래고, 모든 일을 성취할 것이다. 왜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적자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저항할 수 없고, 언젠가는 자신이 패배했음을 선언할 것이다. 왜냐면 모든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 이상 저항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구원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적자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감각적인 사랑.

B.D. No. 0873

1939년 4월 19일

 늘은 영을 강하게 하려면 사랑에 관한 계시를 특정한 관점에서 받아라. 사람들은 종종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사실 사랑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행해야 할 첫 번째의 과제요, 마지막 과제로 사람들에게 설교 되는, 사랑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다.

너희가 아주 자주 사랑이라는 개념 아래 이해하기를 원하는 일은 감각적인 사랑이다. 너희가 감각적인 사랑에 대항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사랑을 파괴한다는 것을 너희에게 말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이 감각적인 사랑은 악한 자의 교묘한 술책이기 때문이다. 즉 감각적인 사랑은 이를 통해 자주 인간의 혼이 뒷에 걸리게 하는 자의 수단이다.

육신의 정욕에 저항하지 않아, 전적으로 악한 자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 있다. 이는 소유하려는 사랑으로써 절대로 전혀 사람을 고귀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또한 가장 높은 존재와 하나가 되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전적으로 육신의 욕망으로 인해 혼과 혼의 성



장이 크게 위협받지 않도록, 아주 많이 조심해야 한다. 그가 한번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되면, 이 정욕을 제어하는 일이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단지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두는, 이 땅의 모든 사랑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 될 수가 없음을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베풀지 않고, 단지 이 땅의 소원을 성취하는 일에만 관심을 두는 사랑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느끼는 것만을 보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실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단지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고, 자신에게 오는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런 사랑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 안에 있는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 사랑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세주와 깊이 하나가 되게 해주는 기초가 될 것이다.

아멘

사람들 사이의 사랑.

B.D. No. 1459

1940년 6월 7일

**너**희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한 서로에게 소속된 감정이다. 그러므로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필요 없다. 하나님 자신이 이 감정을 너희 심장에 넣어주었고, 이는 너희를 행복하게 하고, 너희를 하나님 자신에게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이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 자신도 이런 깊은 호감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피조물에게 행하는 사랑은 똑같이 창조주에게도 향한다. 단지 이 사랑이 희생적이어야 하며, 탐욕적인 갈망이 되어서는 안되며, 그러나 갈망하면, 이런 갈망이 동시에 사랑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을 서로 간에 기쁨이 되게 창조했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한다. 그러므로 자기가 갖기 원하는 것을 남에게 줘야 한다. 사랑을 구하면, 사랑을 줘야 한다.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존재들에게 마찬가지로 주고 싶어하는 주님도 자신의 존재들에게 사랑을 요구한다. 사람이 단지 세상의 유익만을 구한다면, 그의 사랑은 진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근원이 아니라, 자기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대적자가 이 감정을 너희 심장 안에 넣어, 너희의 의지가 약해지고, 육신의 정욕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 것이다. 그러면 사람은 얻으려고 하고, 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랑은 축복이 되게 발전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사랑은 세상을 향한, 감각을 위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의 원하는 감정이 아니라, 대적자가 너희를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다. 이런 욕구가 너희를 지배하고, 너희는 이 욕구를 잘못되게 사랑이라 명한다. 이는 사랑이 아니라, 갈망과 이기심이며, 남을 행복하게 해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은 다시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을 추구하게 만들어야 하고, 서로 도와 저 높은 곳을 향하는 길로 향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함께 하는 일을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로, 행복의 빛을 비추는 것으로 느껴야 한

다. 그의 심장은 그에게 자신의 사랑의 빛을 비추어 준 창조주께 넘치게 감사하며 환호해야 한다.

사랑은 서로 간에 선한 생각을 불러 일으키며, 선한 행동을 유발시킨다. 그러면 이 사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며, 서로를 행복하게 하며, 높인다. 사랑은 요구하지 않고 준다.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 간다. 이 사랑은 제한이 없으며, 영원까지 계속된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랑에 제한을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랑은 항상 계속해 행복과 기쁨을 의미하며,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적인 것이고, 육체에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혼에 감동을 주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육체를 통해 느끼는 것이 아니라, 혼을 통해 느낀다. 영적인 존재가 결합하게 지원하는 것이, 이로써 하나님이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사랑이고, 능력이다.

아멘

육신의 정욕. 세상을 향한 욕망. 사랑을 행함.

B.D. No. 2473

1942년 9월 14일

**너**희 사람들은 육신의 욕망 가운데 너희의 육신의 정욕을 성취시키기 위해 추구하고, 이를 통해 너희들은 세상의 즐거움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육체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들은 혼에게 적게 축복이 된다. 왜냐하면 혼이 육체의 소원을 따르지 않을 때, 그러므로 혼이 육체가 자신의 소원을 성취시키기 위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자유의지로 거부할 때, 혼이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랑을 해야 하고, 그러므로 그는 항상 육신과 혼의 모든 위험 가운데 있는 자신의 이웃사람들을 도와야만 한다.

진정한 사랑은 항상 베풀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웃사람들이 위험 가운데 있다면, 사랑을 행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자세가 혼이 성장하는데 결정적이다. 두 사람이 순전히 육체적으로 연결이 된다면, 하나님은 어느 정도 사랑의 정도로 평가한다. 사람은 모든 형편 가운데서 양육하며, 고귀하게 만드는 역사를 이웃사람들에게 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려는 의지가 육체의 연합이 축복이 될지 또는 하나님 앞에 합격하지 못할지를 결정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인내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대함을 베풀고,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아뢰고, 그에게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베풀다. 사람이 이 땅에 속하여 있는 동안에는 그의 세상적인 욕망은 더 크고, 그러므로 극복하기가 더 어렵다.

그러나 사람이 세상을 향한 욕망을 이기기 위해 더 많이 싸울수록, 그 자신이 더욱 느낄 수 있게, 이웃사람을 향한 사랑의 계명을 어기지 않으면서 세상적인 욕망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 왜냐하면 사랑이 첫 번째 조건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단지 이웃사람들의 행복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는 자신이 요구받는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항상 주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베푸는 사랑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혼이 높은 곳으로 성장하는 일은 결정적으로 베푸는 정도에 달려있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을 추구할지라도, 대적자가 너희를 놓아줄 거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의지가 약한 동안에는 대적자가 제한이 없이 역사한다.

단지 강한 의지로 대적자에게 그가 극복할 수 없는 저항을 할 수 있다. 대적자가 사람에 대한 권세를 얻을지는 항상 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의지가 줄어들면, 대적자의 영향력은 다시 강해지고,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유혹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끊임없이 싸워야만 하고, 끊임없이 힘과 은혜를 구해야만 하고,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해야만 하고, 악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지 항상 경계하고 지켜보고 기도해야만 한다. 왜냐면 싸울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세상의 유혹으로 항상 또 다시 사람에게 다가오고, 이는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대적자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왜냐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고,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를 희생해야만 한다. 그러나 세상은 단지 걸보기의 재물을 제공하고, 단지 일시적으로만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라지는 유령이다. 세상은 영속적인 가치가 없지만 그러나 아직 영적 가치를 파괴한다. 다시 말해 세상은 사람들이 영적인 추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영적인 추구에 집중하지 않는 일은 성장의 과정에서 퇴보하는 일이다.

대적자는 끊임없이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생각을 한다. 그러므로 대적자는 세상적인 즐거움의 형태로 사람에게 계속해서 접근하고, 세상의 기쁨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사람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시도한다. 사람이 확고한 의지로 대적자에게 저항하지 않으면, 그는 패배하고 대적자가 싸움에서 승리한다. 인간의 몸은 즐기는 반면, 혼은 위험에 빠진다. 왜냐면 인간이 이 땅의 쾌락을 누리는 것과 같은 정도로 굶주려야만 하기 때문이다.

혼이 몸에 대항하여 자신을 관철시킬 수 있다면, 혼에게 사람을 만족하지 못하는 기분을 갖게 만드는 일에 성공하게 된다. 이는 사람이 단지 주의만 기울인다면, 내면의 음성을 통해 사람에게 전달되는, 내면의 훈계와 경고이다. 그러면 그는 세상을 향한 성향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하고, 더 큰 의지로 다시 영적인 추구를 한다. 의지가 그에게 의지를 실행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게 한다.

그러나 자주 세상의 소리가 내면의 음성보다 강하다. 그러면 내면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사라진다. 그는 세상의 쾌락의 소용돌이 속으로 항상 더 깊숙이 빠져들고, 즐거기를 원하고, 대적자의 그물에 갇히게 된다. 대적자는 그를 자신의 그물로 단단히 묶고, 그에게 세상의 기쁨을 제공하고, 그가 영적인 재물을 전혀 받지 못하게 한다. 대적자가 사람의 의지를 묶은 것이다. 단지 능력과 은혜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는 그가 자신을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일은 어렵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에게 힘과 은혜가 역사하기 전에, 그가 스스로 대적자를 떠나 하나님을 갈망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너희를 지키라!

하나님의 대적자가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접근한다는 것을 생각하라. 단지 너희의 의지가 대적자를 묶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이런 의지가 올바른 강함에 도달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라. 세상적인 유혹의 형태로 끊임없이 너희 주위에 숨어 기회를 엿보는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라. 그들에게 대적하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힘을 요구하라. 왜냐면 모든 실패는 영적인 퇴보를 의미하고, 모든 극복이 너희를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제공하는 것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충분한 것이고, 세상 재물이나 세상 기쁨 또는 즐거움으로 절대로 대체될 수 없는 것이다.

경계를 하라. 너희가 너희를 쓰러뜨리려는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을 알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힘을 요청하고, 너희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요청하라. 이로써 너희가 모든 유혹에 저항할 수 있게 하라.

아멘

사랑. 잘못된 사랑과 신적인 사랑. 인간들 사이의 사랑이 깨어나게 하는 일.

B.D. No. 3310

1944년 10월 28일

**시** | 장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늘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어떤 요청을 아버지는 듣지 않고  
**□** 흘려보내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생각은 힘과 은혜를 준다. 왜냐면 아버지의 사랑이 내면의 평화를 위해 투쟁하고 아버지에게 속하기를 원하고 세상의 공격에 맞서 싸워야만 하는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힘이 필요할 때 그들에게 힘이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 안에 사랑을 두었고, 느낌이 올바른 방향을 취한다면, 더 이상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신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했다. 사랑은 연합을 향한 욕망이고, 이 욕망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에게, 세상의 물질에게 또는 다른 쾌락을 향할 수 있다. 이런 갈망은 고상하게 만들지 않고 혼을 타락하게 한다. 그러면 이런 갈망은 혼을 위해 싸워야만 잘못된 사랑이다.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빛이 충분한 높은 곳을 추구하고, 성숙한 영적인 존재와 결합을 위해 노력하고, 행복하게 해주기를 추구하고, 그러나 절대로 세상의 소유물을 추구하지 않는다. 올바른 사랑은 또한 모든 것으로 향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곳을 돕기 원하는 구속하려는 의미에서 향한다. 주려고 하고 행복하게 해주려는 원칙이 지배적이라면, 비록 사람이 이 안에서 자신의 행복을 느낄지라도, 진정한 사랑은 또한 사람에 의해 사람에게 깨어나게 할 수 있다. 왜냐면 올바른 사랑은 행복하게 해주어야만 하기 때문이고, 올바른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기 때문이다. 결합을 향한 열망은 진정한 사랑의 특징을 나타내 줘야만 한다. 단지 이런 결합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단지 육체적인 연결은, 사람이 충분히 강하지 않고, 주려는 사랑이 요구하는 사랑으로 변한다면, 진정한 사랑을 위협하게 할 수 있다.

반면에 영적인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고 신적인 사랑으로 머물고, 사람을 절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 왜냐면 이런 사랑은 혼의 연합이고, 영적 힘의 증가를 위한 연합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다. 왜냐면 이런 사랑은 혼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두 사람의 갈망이 위로 향하고, 그들이 이제 함께 길을 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육체적 사랑은 항상 영적인 사랑을 위해 희생을 해야만 한다. 즉 육체의 욕망을 극복해야만 한다. 사람은 단지 주지만 원해야만 하고 절대로 소유하기를 원하지 말아야만 한다. 그는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는 자신의 사랑이 올바르고 신적으

로 머물도록 자신과 싸워야만 한다. 이로써 사랑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는 순수한 영적인 사랑으로 머물게 해야 한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은 항상 올바른 사랑을 증명하고, 서로를 향한 두 사람의 사랑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봉사로 구성되어 있는 동안에는 신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축복한다. 왜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서로를 위해 창조했고, 그들을 하나로 모여 함께 높은 곳으로 나갈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순수하고 구속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모든 언약을 축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사랑을 가장 거룩한 선으로 보호해야만 하고, 삶을 마칠 때까지 순수하게 신적으로 유지해야만 한다.

아멘

사랑의 일대 일의 관계. 쉬운 이 땅의 길.

B.D. No. 1021

1939년 7월 24일

**사**람이 혼자 가야만 하게 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가장 먼 길을 가는 일이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모든 고통과 모든 보살핌이 두사람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외롭게 사는 사람은 혼자서 모든 부담과 수고를 짊어져야 한다. 그는 자신과 의사 소통할 사랑스러운 심장이 없다. 그가 쓰러질 위험이 있을 때, 그를 들어 올릴 사람도 없고, 힘든 시간에 용기를 북돋우고, 그를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가 비록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그는 항상 끊임없이 혼자 사는 일이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다. 그들은 세상에서 자신을 격리시키고, 모든 격려와 모든 행해지는 도움을 거부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끊임없이 고독한 상태에서 이 땅에서 매우 먼 길을 가야만 한다.

자연의 법칙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창조 세계와 창조 세계의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자연의 법칙이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요구한다. 사람 안의 모든 것이 두 번째 자아를 갈망한다. 사람은 자연적으로 자신 안에서 같은 성품의 사람과 연결되기 원하는 충동을 느낀다. 모든 사람 안에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는 사랑이 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의 연결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뜻으로 정한 돌이킬 수 없는 법이다. 그러나 모든 연결은 또한 깊은 사랑에 기초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심장의 가장 깊은 곳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해야 하고, 그에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는 공동체를 이루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그러한 연결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한다. 그들은 이 땅의 삶의 길을 쉽게 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순수한 사랑이 두 사람을 연결시키는 곳에서 서로의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견디도록 돕고, 이런 사랑이 동시에 아버지가 함께 한다는 보장을 해주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런 곳에서 영원한 신성의 역사를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순수한 사랑이 사람들을 고귀하게 하고, 시선을 위로 향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인해 주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런 깨달음에서 삶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힘을 얻을 것이다. 그들은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들은 둘만의 행복한 관계 속에서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런 깨달음이 축복되게 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신실한 아버지의 보호 아래 안전함을 알기 때문이다.

아멘

결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B.D. No. 4357

1948년 6월 29일

**너**희들은 사랑 안에서 만나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에 의해 축복되지 못한 결합이다. 혼은 깊은 내적 조화로 이루어진 두 사람이 함께 하는 삶이다. 결혼은 법을 따라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전제로 한다. 이 사랑은 일단 한번 마음에 타오르기 시작하면 결코 꺼트릴 수 없다. 왜냐면 진정한 사랑은 심장으로 연결되고, 감각의 쾌락을 좇는 육체의 사랑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이는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다. 늘 상대방에게 주고, 행복하게 해주려는 사랑이야말로 나의 축복을 받는 결혼의 기초석이다.

결혼은 심장으로 서로 간에 순수한 사랑을 느끼는 두 사람의 내적으로 친밀한 교제이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혼을 꿈꿀 수 없다. 두 사람이 내가 그들의 결합을 축복하기를 구함으로 결혼이 성립된다. 그리하여 내 앞에 이 두 사람은 아내요, 남편이 되며, 죽음이 그들을 갈라 놓을 때까지 함께 동행해야 한다. 그러한 결혼을 한 사람은 어떤 외적 곤경으로 부득이 떨어져 있을지라도, 서로에게 속한 것으로 느낀다. 나의 축복이 그들 위에 머물 것이다. 왜냐면 나로부터 말미암은 가장 거룩한 감정이 결합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결혼의 첫번째 조건이다.

(1948년 6월 29일) 그러나 이 땅에서 순전한 사랑은 보기 드물지만, 혼인을 통한 결합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내 뜻과 어긋나는 일이 아니다. 왜냐면 인간 종족이 계속 번식해야 하고 무수히 많은 혼들이 물질세계에서 그들의 마지막 성장 과정을 가기 위해, 어떤 몸 안에 육신을 입기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결합이 외적으로,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형식 안에, 어떠한 법 아래 의무와 권리를 포함한 형태가 돼야만 한다. 왜냐면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사람은 내가 원하는 질서를 쉽게 깨고, 결과적으로 영적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후손들의 바른 양육에 위험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적 형태를 따른 결혼은 내 뜻에 합당한 것이고, 나의 특별한 축복이 함께 할지는 서로를 향한 부부의 사랑의 정도에 달려있다. 그러나 나의 축복에 결정적인 요소는 결혼이 사람 앞에서 혹은 내 앞에서 맺었는가의 여부이다. 만약 한 결혼이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이 없이, 다른 동기로 맺어진 것이라면, 이는 실제 세상 앞에서 인정되는 결혼이다. 나는 그들이 구하면, 나의 도움을 거부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결혼은 내가 기뻐하는 진정한 의미의 결혼이 아니다. 이 부부는 내가 의도한 사랑을 통해 축복된 일이 되고 내가 축복하는 연합의 상태가 아니다. 왜냐면 순수한 사랑이 있는 곳에 주려는 원칙이 항상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혼에 사랑 자체인 내가 절대로 제외되지 않는다. 나는 남편과 아내로서 내 앞에 나와, 나의 축복을 구하는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 안에서 나의 영이 역사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게 한 것을 분리하지 말라” 하나님의 축복에 인한  
결혼.

B.D. No. 4655  
1949년 6월 1일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축복한 것은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연합이 되어 머물러야 한다. 하지만 내 축복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상적인 연합은 나의 전적인 동의를 보장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의 축복을 요구하고, 자신들이 축복을 받은 것으로 여기려면, 양측의 영적인 일치성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한다.

영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영적인 추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 연합할 수 있고, 세상적으로 연합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비록 이런 연합이 그들에게 나의 축복을 보장해 줄 의식과 종교 행위를 통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다 할지라도, 이런 연합은 절대로 나에 의한 연합으로 여길 수 없다. 내가 비록 이런 연합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고 절대로 분리를 좋게 여기지 않지만, 나는 신성한 축복을 내리지 않고, 이 땅에서 그들의 목표가 함께 온전하게 되기 위해 추구하는 일이고, 혼을 성장시키는 일이고, 나를 향한 같은 사랑으로 삶의 길을 가기 원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린다.

그러므로 많은 결혼이 실제 이뤄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내가 축복한 결혼은 단지 소수이다. 내 앞에서 영원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 나는 두 사람에게 그들이 현재에 그리고 영원히 서로에게 속하려는 의지를 요구하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원하고, 지팡이가 되어주려는 의지를 요구하고, 그러므로 그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려는 의지를 요구하고,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육체적이고 영적으로 긴밀한 공동체를 위해 하나가 되려는 갈망으로 연합을 이루려는 의지를 요구한다.

혼들의 영적인 조화가 더 깊어질수록, 연합하려는 갈망이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런 영적인 조화는 영적이 공동체임을 증거해주는 같은 생각과 같은 행동과 나를 주제로 하는 같은 말과 대화로 나타난다. 함께 나와 나의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나의 축복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공급을 받을 것이고, 모든 위험과 고난 가운데 내가 그들과 분명하게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세상이 연합을 해체하는 일을 금하지 않고, 쉽게 해체할 수 있을지라도, 그런 연합을 해체서는 안 된다. 왜냐면 내가 맺는 것을 사람이 분리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왜 너희를 함께 하게 했는지 아느냐? 즉 너희가 서로 만나게 했는지를 아느냐? 내가 너희가 서로에게 향하게 하는 일을 가능하게 했고, 영적인 일치로 알아볼 수 있게 했는지 아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스스로 다시 헤어져서는 안 되고 또는 내가 너희의 계획을 수행하는 일을 막지 않는다면 너희를 향한 나의 축복을 철회될 수 있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분리는 오직 너희 혼의 구원을 위해 내가 너희를 분리시킬 때, 너희에게 영적인 차이가 발생하고, 일치함이 더 이상 없게 되고, 더 이상 영적인 동역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내가 너희 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험하게 하지 않기 위해 너희들 중 하나를 내 보호 아래 둘 때 허용이 된다. 그러나 이런 연합이 끊어진 것이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합하게 한 것을 인간이 결코 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영적인 추구로 이뤄지고, 나의 동의를 받은 모든 연합에 나의 축복이 함께 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올바른 부부.

B.D. No. 4834

1950년 2월 10일

**결** 혼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부는 단지 이 땅에서 맺은 것이고, 하늘에서 맺어준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이 땅에서 하나가 된 일은 하나님의 축복을 요청할 수 없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비록 이 땅에서 법적으로 결합되었을 지라도, 즉 결혼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절차를 갖췄다 할지라도, 이 연합을 인정하지 않는다. 둘이서 하나님을 그들의 주님으로 깨닫고, 사랑으로 주님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들의 결합을 축복해주기를 구할 때, 비로소 확실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왜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갈망하는 곳에 함께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사랑으로 서로가 이루는 연합의 증인이다.

그러므로 아주 적은 수의 부부들이 단지 하나님 앞에 맺어진 것으로 여길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면 교회의식이 하나님이 세운 조건을 충족시키는 일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절대로 자신의 축복을 줄 수 없는 사랑이 없이, 세상 유익을 위해 결혼하는 이들에게도 결혼의식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부는 거룩한 것이다. 부부는 하나님이 인류를 존속시키기 위해,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혼이 같이 성장하도록 만든 것이다. 부부는 욕망을 채우기 위한 또는 세상 유익을 얻기 위한 사업적인 것으로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부부관계는 맘대로 중단시키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연합된 결혼은, 다시 말해 서로 같은 의지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한 결혼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연합되고, 세상적으로는 단지 죽음을 통해서만 자유롭게 되어 한 동안 서로 떨어진다. 이런 부부는 영의 나라에서 다시 연합이 되어, 함께 높은 성장을 추구한다. 이런 부부는 이 땅에서 나, 영계에서 나 영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혼들의 연합으로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목표이다. 사랑으로 한번 서로 연합한 것은 영원까지 연합된 상태로 남는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맺어진 진정한 부부는 단지 아주 적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깊은 행복과 영적인 하나됨을 보기가 힘들다. 왜냐면 사람들이 그들의 욕망을 따라 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절대로 깊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절대로 오래갈 수 없는 순전히 육체적인 호감에만 만족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축복을 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올바른 부부가 된다. 이런 부부는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영원까지 혼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산다.

아멘

모든 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결혼.

B.D. No. 6940

1957년 10월 9일

**모**든 축복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위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와야만 한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으면, 그의 축복은 항상 단지 이웃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면,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과 연결을 이룰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이 좋다고 인정해주기를 구하는 기도는 너희가 모든 삶의 형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도움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실제 이 땅의 자신의

일꾼을 택하여 일꾼이 자기 대신에 사람들에게 그 자신이 사람들에게 선물하기 원하는 것을 전하게 하고 자기 대신에 사람들에게 말하게 한다.

왜냐면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의 의지의 자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직접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대리자들은 이웃들이 행하는 일을 인도해 그들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단지 유일하게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만이 유일하게 자신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주고 그러므로 사람은 단지 하나님을 대신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 스스로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느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간청하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

왜냐면 많은 것들이 단지 겉치레이고 내면의 의미는 더욱 적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과 내적으로 연결이 되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간청하지 않고 어떤 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확실할 것이다.

그러나 형식이 되어버린, 기계적으로 실행되고 관습과 연관되어 있는 축복을 나누는 일은 항상 형식으로 남고 사람들에게 적은 효과를 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에 하나님의 동의를 얻었을 것이다. 왜냐면 예를 들어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의 자유의지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방해했을 형식적인 결혼도 축복하기 때문이다.

결혼이라는 할 수 없는 결혼이 세상적인 물질적인 이유로 이뤄진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결혼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선행조건을 갖추지 못한 연합이 이뤄진다. 축복하는 사람과 축복받는 사람이 하나님로부터 축복받기 원하는 사람의 의지를 증명하는 하나님과 긴밀한 연결을 이루면, 교회의 축복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될 필요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교회는 이런 연합을 축복하지 일을 중단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 자신이 이런 결혼을 축복하는 것처럼 축복한다.

그러므로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는 사람의 의지를 증명해주는 하나님과 긴밀한 연결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혼이 구원을 받게 인도할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간청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도해 이 일이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는 법을 알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전혀 축복을 받지 않고 시작하는 일은 적게 도움이 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마찬가지로 단지 형식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특권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평가할 수 없다. 영으로 진리로 기도하고 수행하는 일 만이 항상 단지 가치를 갖을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긴밀한 기도는 성취될 것이다. 왜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단지 이런 긴밀한 연결 가운데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아멘

감각의 중독. 성교. 목적.

B.D. No. 0850

1939년 4월 5일

**대**부분의 사람이 거부하는 일은 도덕적인 삶을 살라는 가르침을 영접하는 일이다. 이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깨어나게 하려는 의지가 없는, 모든 육체적인 감각의 행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다. 성적인 욕망이 아주 강하게 발달하여, 정욕을 통해 가장 큰 저항하려는 의지를 시험해볼 수 있다.

그러나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 이 육신의 정욕에 대항하여 싸운다. 사람들은 육체적인 욕망에 굴복하고, 항상 지속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혼에 아주 큰 해를 끼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이 정욕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아주 많이 약해져, 이제는 순수하게 영적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게, 육체적인 기쁨과 함께, 이로써 항상 또다시 자녀를 낳도록 해서, 육신을 입기를 기다리는 혼에 이 땅의 위에 존재할 기회를 주기 위해, 아주 자연적인 인간의 성교 과정을 주었다.

이것만이 단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목적이다. 그래서 신중해야 하고, 엄격한 근신과 자기 절제를 통해 모든 성적인 도취에 빠질 가능성을 제어해야 한다. 그 대신에 사람들은 이 땅의 가장 큰 과제를 회피하고, 제한이 없이 단지 육체적 욕망을 위해 자신을 드리고,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 이 육체의 욕망이 삶의 주된 동기가 되게 한다. 이를 통해 혼에 제거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들어, 혼이 위를 향한 길을 찾을 수 없게 만든다. 혼은 육체의 정욕에 의해 이 땅의 포로가 되어, 자기 자신의 힘으로 높은 곳으로 성장할 수 없고, 항상 그리고 항상 또다시 타락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끝없이 싸운다.

인간의 신체 기관은 그의 욕구에 응해주는 일이 무조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은 자신을 아주 잘 절제하고, 정욕을 극복하도록 양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욕망은 응해주면 응해줄수록 증가하고, 마찬가지로 인간의 의지가 강한 만큼, 그리고 사람이 육체의 욕망을 남김없이 채운다면, 혼에 어떤 해를 끼치는지를 의식하는 만큼, 욕망이 절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육체가 부족하게 되지 않도록, 자신의 혼에 대항하여 분노한다. 그들은 육체의 본래의 용도인 인간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로써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육신을 입기를 원하는 혼에 인간의 육체에 들어갈 기회를 막는다. 즉 인간이 태어나는 일을 막는다.

아멘

**셀** 수 없이 많은 혼들이 육신을 입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항상 새로운 인류가 생  
성될 것이다. 항상 또 다시 이 땅의 마지막 성장과정 동안에 혼이 거할 수 있는 사람들  
이 태어나야만 한다. 그러므로 항상 또 다시 이 땅의 사람들의 자원하는 자세가 혼이 육신을  
입을 수 있게 해준다. 사람이 이 땅에서 마지막 육신을 입을 기회를 준다면, 이는 구속받지 못  
한 존재가 사랑을 행하는 일이다. 단지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려는 의지가 모든 남자와  
여자의 연합의 동인이 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의지가 없다면, 사람의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목적은 가져야 할 육체의 기능이 올바르게 활용되지 않은 것이다.

이 영역에서 많은 죄를 짓는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는다. 육체는 자신의  
원래의 과제를 위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한 결과는 많은 혼들이 헛되게 기다리게 하  
고, 비록 혼들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는 일을 허용 받는 성장단계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육신  
을 입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혼들은 이제 이 땅 가까이에 거한다. 혼들은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만들려고 한다.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이 된다면, 대부분 이런 경  
우이다. 왜냐면 사랑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연합을 이루는 원동력이 돼야만 하기 때  
문이다.

생명으로 깨어난 혼이 이 땅의 짧은 기간 동안에 성장에 도달하여, 빛의 나라에 들어갈 가능  
성을 갖기 위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일이 필요하다. 사랑이 없는 연합은 혼에게 육신을  
입을 기회를 주지만, 그러나 육신 안에 악한 충동이 아주 강하게 지배한다. 그러므로 이 충동  
을 극복하기 위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특별하게 싸워야만 한다. (1943년 7월 3일) 후손을  
나으려는 사람의 의지는 대부분 서로 간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연합에 사랑이 지배적  
이라면, 이제 육신을 입는 혼에게 큰 장점이 된다. 왜냐면 새로 태어난 존재에게 사랑의 불씨가  
넘어가고, 이는 이제 현저하게 쉽게 이 땅에서 혼의 성장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손을 갖지 않으려는 노력은 육신을 입으려는 혼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사람의  
충동이 새로운 존재에게 같은 충동을 강하게 하고, 새로운 존재의 혼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에 이제 항상 지속적으로 이에 대항하여 싸워야만 한다. 혼들이 육신을 입지 못한다면, 그들  
은 그럴지라도 사람들 가까이에 거하며 사람들에게 재촉을 한다. 다시 말해 그들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아이를 낳게 하려는 목적으로 서로 연합이 되게 한다. 그러면 항상 육체의 욕망  
이 더 크게 되는 일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왜냐면 혼들은 단지 그들의 특성에 맞게 사람들에게  
역사하려고 시도하고, 그러므로 자신이 육신을 입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위해, 순전히 육  
체적인 욕망을 전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이 충동에 의해 연합을 이루는 사람에게 큰 책임이 있다. 왜냐면 그들은  
육신을 입기 원하는 혼들로 둘러 쌓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욕망으로 자신들과 같은 성  
품을 가진 혼들을 유혹하고, 혼들은 주저하지 않고 이런 순간을 활용한다. 왜냐면 새롭게 잉  
태되는 존재 안에서 이제 인간으로 이 땅의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혼들이 많  
다. 왜냐면 사랑으로, 의식적으로 후손을 태어나게 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단지 적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류는 항상 영을 떠나게 될 것이다. 왜냐면 사랑이 없이 이 땅의 빛을 보  
게 된 사람들에게 단지 사랑이 적게 있기 때문이다.

십계명중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계명.

B.D. No. 4979

1950년 10월 4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은 너희가 나에게 잘못 행한 것을 깨닫게 해야 하고, 이 땅의 너희의 삶은 나와 연합이 되기를 진지하게 추구하라는 특정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이 계명은 너희가 나에게 인도하는 다리를 건너 이 세상을 뒤로 하고, 묵상과 깊은 기도를 통, 고요한 가운데 나와 단둘이 하는 대화를 통해 너희 자신을 영의 나라에 거하게 하라는 특정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심장으로 올바른 주일을 지키고, 너희가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너희를 세상의 노예로 만들어서는 안되는 세상을 쫓고 추적하는 데서 휴식을 취하라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너희는 단지 유일하게 내 안에서 너희의 주님을 깨달아야 하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 그러므로 실제로 자주 기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비록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의 의무를 해야 하고 쉬지 않고 일해야 할지라도, 너희의 생각이 나에게 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될수록, 너희가 자주 생각으로 나와 연결시킬 수록, 너희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나를 너희의 하나님이고 영원한 아버지로 깨닫게 된다.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지키므로써 너희가 다시 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게 된다.

그러나 너희의 사랑이 이웃에게 향해야 한다. 누가 너희의 이웃인가? 너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너희의 이웃이다. 너희는 이들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모세를 통해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줄 때, 사람들에게 그들의 실수와 허물을 특별히 알려줘야 했다. 왜냐면 그들 안에 자신 주변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었다. 자녀를 향한 사랑도 더 이상 행해지지 않았고 이는 버림받은 상태요 죄악된 상태요 이기적인 상태였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웃사랑의 계명을 세밀하게 알려줘야만 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질서를 존중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여러개의 계명으로 줘야만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포함되어 있다. 현 시대의 사람들도 사랑을 행하라는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면 지켜야만 한다.

너희는 너희의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자녀로서 부모님을 사랑해야 하고 부모님께 항상 순종해야 한다. 너희의 부모가 나로부터 과제를 받아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위를 향해 성장하는 목적을 가진 이 땅의 삶을 사는 길을 가능하게 했음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너희를 위해 너희에게 자연 본성적으로 실행하며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돌봐준 부모님을 너희가 사랑해야 함을 항상 생각해야 하고, 너희를 태어나게 한 부모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들의 삶이 끝날 때까지 돌봐야 한다. 그러면 나도 너희를 마음에 들어하는 기쁨으로 지켜보고 내 사랑으로 너희를 돌볼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부모를 향한 사랑을 통해 따뜻한 사랑과 사랑하려는 의지를 가진 심장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심장이 나를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했고 창조한 존재들을 올바른 자녀로 만들기 원하는 영원한 아

버지로 깨닫는다면, 이런 심장은 나에게 사랑으로 보답할 것이다. 단지 사랑이 너희를 내 자녀로 만든다. 누구든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하늘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1950년 10월 4일)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만약에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면, 이 계명은 저절로 지켜진다. 왜냐면 사랑은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고 생명을 죽이는 일은 더욱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명을 죽이는 일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 빼앗으려고 하는 단지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의 목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단지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기 위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빼앗는 일이다. 그러므로 만약 너희가 생명을 폭력적으로 중단시켜 나의 은혜의 선물인 혼을 불의하게 빼앗는 일은 너희가 책임질 수 없는 큰 죄를 범하는 일이고 너희는 이웃을 대적하고 또한 나를 대적하는 두 배의 죄를 짓게 된다.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일은 너희가 너희 이웃을 창조한 분을 사랑하는 일을 간접적으로 거절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일과 같다.

비록 고귀한 목적이 있을지라도, 이 땅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절대로 좋은 일이라 할 수 없다. 왜냐면 육신의 생명이 혼에게 주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육신 안의 혼이 높이 성장하게 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세상적인 삶과 육신의 삶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단지 육신의 삶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가 생명을 맘대로 죽여도 된다고 믿고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서는 더욱 안 된다. 이 땅에서 또한 영의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복수심이 불의하게 다른 사람을 죽인 자를 뒤쫓아 다니고, 더 나아가 그는 이런 미움과 사랑이 없는 행위로 인해 가장 깊은 흑암 가운데 빠진다. 왜냐면 그가 자신을 사탄에게 드렸기 때문이다. 사탄은 나에게 의해 생명으로 깨어난 존재가 위로 성장하는 일을 막기 위해 파괴하는 일을 추구한다.

사탄은 죄짓기 원하는 자신의 의지를 사람들에게 심고, 사람들을 사탄적인 역사의 도구로 사용한다. 그러나 사람은 자유의지로 이를 거절할 수 있고, 그는 죄를 짓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세상 권세자에 의해 강제로 행한 경우와 사람이 위험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행한 경우와 자신의 내면이 전적으로 사랑이 없는 행동에 반항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명령에 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상 단지 이 계명을 어기며 행한 사람의 심정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심장으로부터 근원이 되어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는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왜냐면 그는 나의 사랑의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나의 대적자에게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아멘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은 특별히 큰 의미를 가진 계명이다. 왜냐면 이 계명은 육신의 정욕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계명은 감각의 방향에 관한 계명이고, 성적인 생활에 관한 계명이다. 물론 나 자신이 너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계명을 주었다. 나 자신이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기 원하도록 창조하였다. 그러나 최종 목적은 후손을 갖도록 하

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다스리거나 다스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나의 축복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대적자에게는 사람들이 죄짓게 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기회이다. 모든 육체적인 정욕을 채우고 즐기는 일이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심지어 사람을 단지 자연법칙의 자연적인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짐승보다 못한 수준으로 만든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왜냐면 그는 그 자신이 스스로 극복해야 하고, 혼이 높이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자신의 육체를 뒤로 물러서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감각적인 욕망은 혼을 영화시키는 일에 가장 큰 방해물이다. 그럴지라도 만약에 그들이 육체의 욕망이 자신을 지배하게 하면, 그가 유혹에 저항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항상 그 뒤에는 나의 대적자의 영이 있지만, 내가 그들의 욕망이 더 커지게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창조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내가 너희에게 준 아주 진지한 계명이다. 간음은 모든 순결하지 못한 삶으로서 진실로 나의 질서의 법칙을 어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인간의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자연적인 과정을 오용하는 일이다. 순수하고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게 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생명이 탄생되면, 절대로 죄가 아니다. 왜냐면 이는 나의 영원한 법칙에 따른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 감각에 사로잡히는 일은 혼을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들게 하고, 이로부터 다시 빠져 나오기 어려운 혼에게 가장 큰 위험이다. 육신의 정욕은 모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말살시키는 최고단계의 자기 사랑이다. 왜냐면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이웃을 존경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단지 이용하려고 하고,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이로써 여러가지 면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며 죄를 짓게 된다. 진지하게 높은 곳을 향해 추구하는 혼은 스스로 제한이 없이 즐겨서는 안 됨을 안다. 왜냐면 혼이 낮은 곳으로 끌려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다시 높은 곳으로 도달하기 위해 말할 수 없이 싸워야만 함을 알기 때문이다.


올바른 부부를 내가 절대로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거부한다면 내가 사람들이 후손을 낳도록 창조하지 안 했을 것이다. 그러나 쉽게 경계선을 넘어설 수 있다. 모든 넘어서는 일은 내가 원하는 자연의 법칙 가운데 인류가 지속되도록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 부부를 파괴하는 일이다. 그러나 나는 인간의 상태를 알고, 그들의 연약한 의지와 나의 대적자의 강력한 영향력을 안다. 나는 죄를 짓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이 계명을 그들의 유익을 위해 그들에게 주었다.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는 자신들의 혼에게 해가 되게 자신들의 육체의 욕망을 발산시키는 사람보다 쉽게 높은 곳으로 향한 길을 갈 것이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가운데 아이를 낳는 일이 불신의 원인이 된다.

B.D. No. 7010

1958년 1월 4일

 든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의 이 땅의 존재가 만약에 단지 이 짧은 시간을 동안만 사람의 “나”가 존재하면, 태어난 순간부터 시작되고 죽음의 시간으로 끝나면, 의미와 목적이 없음을 깨달아야만 한다. 그가 창조주를 인정하면, 그는 이 창조주

를 단지 자신의 기분에 따라 헛된 이 땅의 염려와 기쁨 때문에 존재들을 창조한 아주 작은 영적인 존재로 봐야만 한다. 만약에 그가 자신을 단지 임의대로 자연에 의해 생성된 작품으로 여기면, 왜 그에게 이성과 자유의지가 내재하고 있는지 질문을 해보아야만 한다.

왜냐면 이런 생각이 이런 임의적인 자연의 작품임이 그에게 의심스럽게 보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이성과 자유의지를 통해 모든 다른 자연의 피조물들과 구별된다. 그러므로 그는 마찬가지로 이성과 자유의지를 가진 따라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창조주의 영을 알아볼 수 있다. 그가 이런 생각에 도달하면, 그는 그의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와 목적을 헤아려 보려고 시도하고 단지 이 땅의 삶 자체를 위해 창조되었음을 영접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이런 깨달음을 얻지 못했고 자신을 생성되어 나오게 한 사랑과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단순한 생각해 보는 일을 통해 이런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 의해 태어난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 안에 빛을 주었을 어떠한 사랑의 불씨도 불타게 하지 못한 아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는 그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이제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사람들이다. 자녀는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로 세상에 태어나고, 자녀들의 혼은 곁형체에 둘러싸이고 사랑과 빛이 없이 성장한다.

그러나 자녀의 성품이 항상 부모의 성품을 닮을 필요는 없고 의식적으로 이 세상에 위험과 싸우는 혼이 그 안에 육신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부모님이 생각이 그들의 자녀에게 전가된다. 그러면 자신을 단지 임의적으로 생성된 자연의 작품이라고 여기는 비로소 자신이 생성되게 동의해준 분과 어떠한 연결도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난다.

왜냐면 이런 아이들의 부모의 의지도 자유하고 그들의 자연적인 특성이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자녀들에게도 생각하는 능력이나 자유의지가 없지 않다. 이로써 모든 사람에게 어두움을 벗어나 빛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불씨를 가지고 있다.

이 불씨를 불타오르게 하는 일이 그들에게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간다. 그러나 그들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을 단지 이 땅의 삶 자체에 두는 죽음의 순간에 자신이 소멸되는 것으로 여기는 자신 위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실로 가장 큰 어두움 속에 있다.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이성의 선물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번 진지한 의지로 진리를 헤아려 보려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되돌릴 수 없게 다른 생각에 도달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잉태하는 일이 대적자의 무기임을 알 수 있다. 이 무기는 자주 사람들의 혼을 얻기 위한 싸움에서 대적자에게 승리를 준다.

왜냐면 대적자가 제한 없이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사람들을 몰아가기 때문이다. 대적자는 저항을 받지 않는다. 사람들이 서로 간에 절제함이 없이 빨려들어 간다. 그럴지라도 사랑이 아니라 단지 정욕의 만족을 위해서이다. 이로써 대부분 단지 어두운 혼이 잉태되게 한다.

이런 어두움은 대적자의 의도대로 대부분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선행조건을 갖추는 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성이 교만으로 또한 가장 큰 비밀을 헤아려볼 능력이 있다고 여



기면, 교만도 깨달음의 기초가 존재했던 혼을 어둡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대적자는 사람들을 믿지 않게 만드는 그들의 생각에 혼란을 일으키는 그의 목표에 도달했다.

아멘

육신을 입는 일. 총동. 이전의 단계.

B.D. No. 2775

1943년 6월 15일

**혼**의 모든 입자들이 혼 안으로 모이게 되면, 혼이 육신을 입는 일이 이뤄진다. 혼의 입자들은 가장 서로 다른 창조물 안에서 이 땅의 과정을 거쳤고, 그런 과정을 통해 높이 성장했다. 이제 육신을 입을 수 있기 위해 모든 각각의 창조물은 자신의 혼의 입자 안에 참여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인간의 육체는 혼의 걸 형체이고, 인간의 혼은 모든 창조물의 축소판을 자신 안에 담고 있다. 이 전의 끝없이 긴 이 땅의 과정이 모든 이런 입자들이 하나가 되게 만들었고, 이제 마지막 육신을 입는 일을 기다린다. 이런 입자들은 혼으로써 그들의 마지막 성장단계를 거치기 위해, 인간의 걸 형체 안으로 육신을 입는다.

이런 육신을 입는 기간이 비록 입자들이 이 전의 의무 단계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였을지라도, 어느정도 자유를 가졌던 각각의 입자들의 성장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르다. 그럴지라도 인간으로 육신을 입기 전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러한 의무의 단계에서 이미 더욱 더 자유스럽게 되었고, 특정한 총동을 줄이거나 또는 더욱 강하게 할 수 있었고, 이로써 더 높은 또는 더 낮은 성장정도에 도달했고, 이제 이런 성장정도가 다시 인간으로 마지막 육신을 입는 기간을 정한다.

그러나 모든 혼의 입자들은 이 땅에서 마지막 육신을 있는 일을 추구한다. 왜냐면 입자들이 인간의 혼으로 하나로 뭉치면, 인간의 걸형체가 그들의 마지막 육신의 걸 형체임을 알고, 입자들이 모든 이 땅의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혼은 이제 혼에게 육신을 입는 기회가 제공되는 곳에서 거한다. 사람의 성품이 혼 자신의 성장정도에 알맞은 곳에, 다시 말해 혼 자신의 고유의 성품을 나타내 주는, 똑 같은 총동과 성품을 찾을 수 있는 사람에게, 혼이 거하는 일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그럴지라도 육신을 입는 일을 빠르게 하기 위해, 다른 성향을 가진 혼이 다른 성품을 가진 사람안으로 육신을 입기를 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면 혼 자신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자주 더 큰 어려움과 싸워야만 한다. 왜냐면 혼의 성품의 특징이 고려되지 못하고, 혼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요구에 올바르게 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이 이 전에 자신의 이 땅에 길을 알기 때문에, 혼 스스로가 결정하면, 혼은 저지당하지 않는다. 왜냐면 혼이 자신의 마지막 성장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육신을 입는 동안, 혼에게 도움의 수단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혼은 이 전의 가장 다양한 형체를 통해 모든 성품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지만, 단지 서로 다른 강한 정도로 가지고 있고, 이런 성품들이 이제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마찬가지로 혼의 의지에 따라 강하게 되거나 또는 약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혼이 무능력한 것이 아니고, 혼의 의지에 따라 마찬가지로 혼에게 능력이 주어진다.

그러나 혼이 자신이 추구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혼은 인간으로 육신을 입기 전의 성장 정도와 같은 상태로 머문다. 그러면 혼이 육신을 입은 일을 통해 어떠한 성장도 이루지 못하고, 혼의 겉 형체인 육신이 죽으면, 혼은 육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그러나 혼은 자신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극복해야 할 정욕과 충동을 통해 아직 물질적인 세계에 묶여 있다. 이로써 혼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는 일을 활용하지 않은 것이다. 비록 저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에 도달하기 위해 많은 기회들이 있지만, 혼이 하나님의 자녀권을 얻을 기회를 놓치고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혼은 표현할 수 없는 후회를 할 것이다.

그러나 육신을 입은 혼은 이 땅에서 가능성을 자신이 어떻게 활용했는지, 죽은 후에 어떤 영적인 성공을 했는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만 한다. 왜냐면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일은 아무리 높게 여겨도 지나치지 않은 은혜이기 때문이다.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일은 사람이 자신의 높은 성장을 위해 도움이 되는 모든 일을 행하면서, 합당하게 귀하게 여겨야 하는 선물이다. 왜냐면 그가 이 땅을 떠난다면, 그는 더 이상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이전 단계의 성향이 성격을 정한다.

B.D. No. 1933a

1941년 5월 25일

**인**간으로 존재하는 현재의 단계는 어느 정도 모든 겉형체의 단계에서 가졌던 영적인 존재의 상태에 합당하다. 존재들은 실제 항상 자신 안에 아직 최고로 강하게 남아있는 저항과 싸워야만 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존재하는 동안에 자신 안의 악한 충동과 싸워야만 한다. 존재가 이 전의 단계에서 광란할 기회를 많이 가지면 가질 수록, 이런 충동이 특별히 강하게 발전된다.

이런 이 전의 단계의 성향이 이제 존재에게 그의 특징을 부여한다. 다시 말해 사람은 이제 이런 충동에 특별히 강하게 대항해 싸워야만 한다. 반면에 이 전에 자원하여 자신의 과제를 수행한, 결과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의 성장 정도에 도달한 사람은 쉬운 삶을 기뻐하게 된다. 존재가 아직 겉형체에 쌓여 있다 할지라도, 섬기려는 의지에 합당하게 자유롭게 된다. 이런 저항하지 않는 존재는 이제 외적으로 이미 존재의 자원하는 성품을 보여주는 형체 안에서 거하게 된다.

그러므로 겉 형체는 항상 사람이 겉 형체를 통해 그의 혼의 성장 정도를 알아낼 수 있다. 이런 같은 특성을 가진 혼의 입자들이 이제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가운데 하나로 모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에 합당하게 이 땅에서 싸움이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혼의 입자들이 연합하고, 이 전의 형체에서 했던 같은 방식으로 존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존재가 빠르게 부족함을 극복할수록, 더 적게 저항을 한다. 그러므로 이미 이 전의 단계에서 인내가 있고, 자원하고, 열심이 있게 될 수 있다. 존재가 이런 충동을 자신 안에 유지한다면, 존재는 인간으로써 똑 같은 충동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의 성격을 정한다.

아멘

사람의 이 땅의 과정은 그의 성향에 합당하다. 다시 말해 그의 혼은 실수와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 혼은 이 땅의 과정을 통해 실수와 부족함들로부터 자유롭게 돼야 한다. 모든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이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혼의 입자들이 다른 형체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어떠한 좋은 또는 나쁜 특성을 약하게 또는 강하게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성품이 전혀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그들 안에 좋은 것을 지원해주고, 부족하거나 또는 악하다 할 수 있는 것들을 극복하도록, 서로 다른 양육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모든 혼들이 이 땅의 육신을 입을 때에 똑 같은 특질을 가지고 있다고 영접하는 일은 전적으로 잘못된 일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주 많은 차이가 있다. 사람들의 성품이 서로 다른 것을 유전에 근거를 둔다. 실제로 겉으로 보기에 자녀들이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짐을 져야만 하고, 실제 그들의 성품 가운데 영적인 성장을 위해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들의 성품의 특징을 짊어 져야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하는 근거에 따르면, 자신의 죄가 없이 유전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합당하게 선천적인 실수와 싸우고 극복하는데 더 많은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들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사람은 혼의 성장을 위해 자신의 모든 실수에 대항하여 싸워야만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해야만 한다. 그 안에 특별한 충동이 지배하고 있다면, 그는 부모의 성향이 사람의 성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은 인간으로 단계 이전의 끝없이 많은 육신을 입은 일이 자신의 특성이 되게 했고, 이 특성 가운데 존재가 행복하게 느끼고, 이러한 실수와 허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선명해져야 한다.

존재는 이제 이 땅에서 실제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연약하다. 존재는 자신의 연약함을 좋은 권한처럼 여긴다. 왜냐하면 그는 이러한 부족함을 자신의 책임이 없이 받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신의 특성과 유사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함께하려는 일은 그의 자유의지이다.

바로 이러한 같은 존재가 육신을 입으려는 혼을 끌어드리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비록 육신의 아버지가 혼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돌보아야 하는 혼의 특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유전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모든 혼들이 스스로 위로 성장하기 위한 일을 해야만 한다. 이 일은 절대로 이웃사람이나, 육신의 부모가 대신해줄 수 없다. 자녀들이 부모의 유전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부모에게 자신의 자녀들의 성향에 대한 책임이 없다. 모든 존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단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하도록 육신의 부모의 보호 아래 맡겨져 있는 동안에, 사람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줘야만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혼에 대한 작업을 모든 사람이 스스로 완성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가 한때 지은 죄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1941년 9월 19일

**이**른바 유전이론은 또한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항상 신체적인 측면에서, 또한 성격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성장에 대해 순전히 세상적인 설명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신체의 구성은, 즉 순전히 물질적인 걸형체는 실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연구는 단지 물질의 물질적 구성을 명확하게 할 뿐이고, 이런 연구의 결과를 절대로 성격의 특성이나 또는 혼의 형성과 연관시킬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격의 특성이나 또는 혼의 형성은 물질에 의존하지 않고, 그러므로 절대로 특정한 영적인 성장이 특정한 물질의 구성의 결과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물질적 구성이 영적으로 높이 성장하는 일과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물질적 구성에 관한 지식은 어떤 영적인 가치도 없는, 단지 사람들의 생각을 특별하게 요구하는, 소위 죽은 과학이다. 창조된 모든 것에서 규칙성을 관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규칙성은 또한 인체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지식은 지극히 현명하고 전능한 영원한 신성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 그러면 이런 지식이 인류에게 축복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물의 순전히 물질적 구성에 의해 존재의 성품과 생각과 느낌과 의지가 정해진다면, 성격의 특성이 어떤 물질의 구성의 결과라면, 다시 말해 서로 다른 이 땅의 물질의 결합에 의한 것으로 여긴다면, 인간의 사고 방식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한 것이다. 그러면 그런 연구는 더이상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다시 말해 그런 연구는 버려야 한다.

사람의 신체의 특성은 그 사람의 혼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육체적으로 완벽하다고 인정받은 두 사람의 결합으로 높은 영적 성숙도를 갖게 되지 않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심지어 이론가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연약한 신체가 자주 영적인 성숙에 더 쉽게 달성할 수 있다. 순전히 외적인 것은 실제 물려받을 수 있다. 이런 일은 창조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영적인 형성과는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그런 연구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아멘

기질. 이전의 단계에서 가졌던 충동.

B.D. No. 2321

1942년 5월 3일

**인**간의 기질이 그의 행동과 생각에 대한 책임져야만 하는 일을 면하게 해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이 원하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나쁜 기질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또한 혼이 인간으로 육신을 입을 때, 이전의 형체 안에서 실제 버릴 수 있었던 기질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혼은 인간으로써 자신의 현재의 기질에 상응하는 과제를 부여 받는다. 다시 말해 혼은 이런 성향과의 싸움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항상 자유의지로 이를 위해 행해야만 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태도에 따라 의지를 강하게 해준다.

사람이 자신에게 대항하는 일에, 자신의 약점과 허물에 맞서 싸우는 일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의지를 가지면, 약점과 허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흘러간다. 이를 위해 사람에게 피하게 해줄 수 없는 더 많은 투쟁이 요구된다. 왜냐면 혼이 이전의 단계에서 혼에게 정해진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더 자유롭게 된 거처를 갖게 된 영적인 존재가 그에게 주어진 더 자유롭게 된 상태를 마지막 한계까지 활용했기 때문이다. 존재는 어떤 의미에서 충동을 최대한으로 따랐고, 이제 인간으로 육신을 입은 가운데 이런 충동을 다시 약화시켜야만 한다. 이를 위해 증가된 의지력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가 이 전의 단계에서 자신을 절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해진 한계를 완전히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일은 이제 이 땅에서 더 높은 성장을 위한 싸움을 줄여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항상 기질에 따라 사람의 형편이 정해지게 된다. 이런 형편 가운데 사람은 자신의 기질에 따라, 자신의 기질을 다스릴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 더 열심히 싸워야만 하게 보인다. 하지만 그에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에게 언제든지 측량할 수 없는 힘과 은혜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이 힘을 요청해야만 한다. 왜냐면 혼이 이전에 혼에게 부여된 자유를 잘못 사용했고, 그런 일이 혼의 책임을 피하게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의지는 성향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 정해진다.

B.D. No. 5257

1951년 11월 19일

**비**록 내 말씀이 모든 의지의 방향이 너희에게 어떤 성공을 주는 지를 알려줄 것이지만, 너희의 의지를 어디로 향하게 할지는 너희의 자유이다. 그러나 내 말씀도 또한 너희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왜냐면 너희의 생각의 방식과 너희의 사랑에 따라 너희가 내 말씀을 다시 영접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사랑이 너희의 의지를 정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너희가 추구하는 것을 항상 사랑할 것이고, 너희의 갈망이 그것으로 향할 것이고 너희의 의지도 마찬가지로 선하거나 악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갈망하는 것을 향한 사랑을 항상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랑이 옳은 방향으로 향하는지 잘못된 방향으로 하는 지가 너희의 영적인 성장을 정한다. 너희는 실제 이제 사랑이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고, 악을 향한 사랑도 심장에서 나오고, 따라서 사람은 자신 안에 잠들어 있는 욕망의 희생자라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별적인 의무의 법 아래 예비 단계에서 아직 극복되지 않은 모든 본능과 욕망이 사람 안에 남아 있고, 이를 이제 정복하고 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사람이 이 땅의 삶으로 가져오게 되는 이런 이의는 어느 정도는 정당하다.

그러므로 이런 속성들이 사람들 안에 존재하고, 이로써 항상 욕망을 자극하고, 욕망은 성취하기를 원하고, 자주 사람들을 완전히 통제할 정도로 강력해진다. 그런 욕망과의 싸움은 자주 어렵지만, 그러나 싸움을 위해 사람들은 나로부터 이성을 받았고, 그는 자신의 느낌에 대항하기 위해 자신의 느낌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사람이 자신의 본능에 따라 행동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만약에 그가 이성이 없이 창조되었고, 본능에 의해 이끌리는 것으로 느낀다면, 실제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의 삶에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그에게 제공이 되고, 그가 내 사랑의 계명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그에게 항상 내 뜻을 알려주는 침묵하는 훈계자와 경고자가 있고, 그가 이제 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필요하다면 자신에 대항해서 싸우는 일은 유일하게 그의 의지에 달려 있다. 자신의 정욕이 자신이 가진 내적인 깨달음대로 행해야 하는 일과 모순이 될 때에 그가 자신에 대항해서 싸우는 일은 유일하게 그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가 이런 싸우는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는다. 왜냐면 진지한 의지가 그에게 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약한 의지는 실패한다. 그러므로 연약한 의지를 강하게 하기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한가지가 단지 필요하다.

예비 단계부터 아직까지도 가진 특이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성으로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헤아려 본다면, 그들은 이미 진리를 헤아려 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들은 올바른 답을 찾도록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을 생각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과 답변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의 의지는 분명하게 아래로 향하고, 그는 아래의 세력들의 희생자가 된다. 그러나 그 자신이 원하는 일이지, 그의 성질의 잘못이 아니다. 왜냐면 사람은 양쪽 방향을 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말할 수 없게 된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이 땅의 자신의 삶의 과제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에게 이성이 주어졌다.

아멘

친척관계라는 느낌에 대한 설명. 혼의 입자.

B.D. No. 5207

1951년 9월 9일

**사**람들 사이에 자주 그들 스스로 설명할 수 없고, 혼이 구성된 데에 원인이 있는 비밀스러운 연결이 있다. 혼들은 자신과 아주 유사하게 구성된 혼들을 만날 수 있고, 이런 유사함이 사람들 가운데 친척과 같은 느낌을 불러 일으킨다. 그러나 그들의 이성으로 이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감정의 동요는 절대로 학문적으로 헤아려 볼 수 없는, 단지 나타나는 영적인 느낌이다. 그러므로 또한 단지 영적으로만 근원을 헤아려 볼 수 있다.

모든 혼 안에 실제로 모든 창조물이 들어 있다. 그러나 창조물 자체가 서로 다른 작품을 보여주는 것처럼 동물의 세계에서든 상상할 수 없는 다양성을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혼도 그의 종류가 서로 아주 다양하다. 왜냐면 혼의 성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사람들이 외적으로 서로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성격이나 느낌이 서로 다르고, 이런 깨달을 수 있는 다른 점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사람이 영적으로 볼 수 있게 되면, 분명하게 유사한 점을 보여줄 이런 혼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서로 만날 수 있다. 왜냐면 단지 혼의 형태와 종류는 단지 영의 눈으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 스스로가 자신의 친척으로 느끼고 그러므로 또한 특별하게 서로 이끌리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는 순전히 육체적으로 연합이 되기 위한 욕망과는 구별이 되는 것이다. 사람의 생각과 느낌이 분명하게 일치되는 일을 통해 조화롭게 영적인 영역을 함께 추구하면서 육체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이 서로가 연결된 느낌을 갖는 가운데 혼이 함께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런 혼들은 서로 간에 일치되고 싸우지 않고, 항상 서로 간의 도움 준비가 되어 있고, 서로가 같은 것을 느끼고, 이 전의 삶에서 함께 살았다는 것을 믿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같은 관계로 모여 하나가 된 혼의 입자들의 조화로운 상태이고, 이로써 연합된 적이 있어야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혼의 입자들이 같은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에 속하여 같은 성장 과정을 같은 기간 동안에 거친 것이다. 이로써 서로 간의 추구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같은 성장과정이 또한 혼을 같이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런 혼들이 이제 자신을 의식하는 의식이 발달된 이 땅의 삶에서 만나게 되면, 또한 그들 안에서 옛 기억의 첫 징조가 나타난다. 그러나 너무 연약하여 그들은 단지 어느 정도 연관관계를 추측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주 잘 못된 설명을 한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혼에게 이 전의 단계에 대한 기억은 지워진다. 그렇더라도 그들의 느낌은 남고, 혼들의 같은 혼의 입자들이 깨닫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같은 형편 가운데 전체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깨달음을 의식하고, 이제 친척이라는 느낌이 깨어난다.

사람의 혼은 놀랍게 예술적으로 연합되어 있어, 귀한 악기처럼 셀 수 없게 많은 소리를 낼 수 있다. 조화롭게 함께 나는 소리는 마치 한 소리처럼 울리고, 이는 같은 성향을 가진 혼들이 저 세상에서 연결되기 전의 미리 맛보는 즐거움이다.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 항상 연합이 된 상태가 영의 나라의 축복에 속하는 것이고,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이는 육체의 체험이 아니라 단지 혼의 체험이다.

혼의 연결은 육체의 연결과 전적으로 다른 연결이고, 혼의 조화는 이 전의 성장 단계에서 인간으로 함께 살았던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전에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다시 만나게 된다는 이런 인식이 올바르다면, 이런 혼들이 조화롭게 느끼는 느낌은 전혀 다른 이유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설명은 항상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모든 혼들은 비록 모든 혼들이 개인으로 머물더라도 언젠가 자신의 반려자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 혼은 이미 이 땅과는 다른 성장단계에 도달한 것이고, 혼은 또한 깊은 지식에 도달하게 되어 그들이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서로를 보완하는 혼들의 연합은 말할 수 없게 축복된 일이고 또한 혼에게 일할 수 있는 증가된 힘을 부여하고, 이로써 영의 나라에서 그들의 과제를 성취하고, 혼들은 하나님과 연합된 가운데 끝이 없는 최고의 축복을 찾기 위해 항상 더욱 더 하나님과 연합이 되려고 추구하게 된다.

아멘

호감과 혐오감.

B.D. No. 8306

1962년 10월 22일

**너**희가 항상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질문에 대해 너희는 답변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항상 나 자신으로부터 빛을 받기를 갈망하기를 원하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이웃들과 교류할 때 어떠한 영의 흐름에 너희가 처하는지 이 흐름이 너희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설명하기 원한다.

아직 구속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대적자의 사슬 아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묵임을 받고 단지 사랑의 정도가 결정하는 그들의 성장 정도에 따라 내 대적자의 영향을 받음을 그러므로 그들이 내 대적자의 크고 작은 영향 아래 있는 것이 그들의 성품을 통해 나타남을 너희는 알아야만 한다. 같은 성향은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항상 자신과 같은 성향을 가진 이웃들과 교제하려고 한다. 왜냐면 그는 이런 사람들을 마음에 들어 하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거슬리지만 다시 말해 반감을 느끼지만 그들에게는 호감을 느낀다. 그러므로 이런 설명은 가장 근접 된 설명이고 모든 사람이 이해할만 한 설명이다.

그러나 만약에 혼이 인간으로 이 땅의 삶을 시작하면, 혼이 더 많이 정화 된 사람들도 있다. 이 혼들은 의무 상태에서 성장하는 그의 이전의 성장 과정 가운데 자원해 모든 요구에 복종해 그들의 저항이 이미 많이 줄어들어서 높이 성장한 상태로 인간으로써 그들의 삶을 시작하고 그러므로 그에게서 많은 사랑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은 항상 이웃에게 선하고 유익한 영향을 미치고 이웃들이 자주 가지고 있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을 부드럽게 한다. 이로써 성숙한 사람이 호감을 주변에 발산하며 항상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역사를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왜냐면 이런 사람은 저항을 받지 않게 되고 적게 성장한 사람에게 역사해 때때로 사랑의 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사랑은 이 사랑에 응답하려는 사랑을 깨어나게 한다. 이런 사랑의 사람에게는 단지 전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대적할 것이고 그들에게 혐오감을 갖게 할 것이다. 게다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장 정도에 알맞은 환경에 거하게 되고 이웃들이 이 환경을 느끼고 감지한다. 이 영역이 대적하는 존재들로 집중되면, 이 사람은 전적으로 대적자의 영향 아래 있게 되고 그는 이미 자신의 성장을 많이 이룬 사람에게 거부감을 불러 일으키고 서로 하나가 되는 일이 불가능한다.

왜냐면 사람이 자신이 추구하는 바와 느낌이 다른 이런 흐름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호감과 혐오감은 단지 영적인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스스로 행복하게 느끼는 자기 자신의 영역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영역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은 불편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단지 소수 사람들이 자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두고 아주 강한 인상을 준다. 이런 인상으로부터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이 감동을 느낄 수 있고 그러므로 그에게 의식적인 저항을 하지 않는다. 육신을 입기 전의 상태에 따라 달려있는 성격 특성의 정 반대 것이 마찬가지로 호감과 사람들 사이에 거부감을 정한다.

한 사람은 이미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 다른 사람 안에는 아직 크게 존재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내적인 거부감을 주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 안에 이미 사랑이 강하게 되었다면, 그는 인내로 연약한 사람과 덕성이 부족한 다른 사람들을 견디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영향을 주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실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이웃을 섬기는 일이다. 왜냐면 한 사람의 사랑의 영역은 이웃들을 생기 있게 만드는 역사를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사랑이 깨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모든 악으로부터 구속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원수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베푸다면 너희 사람들은 진실로 이 땅에서 너희 주변의 축복이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에게 호감을 갖지 않는 사람들을 피해서는 안 되고 좋은 영향력을 주려고 시도해야 한다. 그들이 너희에게 공개적으로 대적하면, 그들로부터 떠나야 한다. 왜냐면 내 대적자가 그들을 통해 너희를 넘어지게 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들의 생각이 아직 바뀔 때가 되지 않은 것이다. 그들과의 교제는 단지 해를 줄 수 있다. 왜냐면 그들은 너희가 영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그들을 도우려고 할지라도 그들은 너희들로부터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 대적자 자신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너희는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그들로부터 보호해 주기를 나에게 구하거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너희에게 주어지는 그들의 흐름으로부터 적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너희 안의 영적인 것인 너희의 혼이 크거나 적게 이런 이웃들로부터 나오는 흐름으로부터 인상을 받는다.

영적인 존재 자신이 이미 높은 성장 정도에 도달했으면, 내 대적자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다. 이를 위해 대적자는 자기에게 속한 자를 활용한다. 그러면 혼이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만한 것이다. 왜냐면 혼은 원수로부터 구속받았고 대적자의 추종자들과 관계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 자신이 큰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 성공할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 자신이 복종할 것이다. 그러면 진실로 불가능이 없는 사랑이 완성한 큰 역사가 성공한다. 왜냐면 사랑은 어떤 사람도 계속하여 저항할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랑을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아주 희귀하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불가능했으면 예수님이 높은 사랑의 정도가 요구되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큰 영적인 유익을 줄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멘

자녀가 믿도록, 하나님의 도움으로 키우는 일.

B.D. No. 2443

1942년 8월 9일

**너**희는 위에서 알려주는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목적이 없이 자신의 말씀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늘과 땅의 연결을 깨닫고, 모든 일어나는 일을 영적인 인도와 연관시킬 수 있게 되면, 그는 이 땅의 삶을 그를 위해 더 쉽게 견딜 수 있게 하고, 또한 그의 혼의 상태를 더 쉽게 개선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그는 자신의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과제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모든 일어나는 사건에 하나님의 뜻이 결정적이라는 확신이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종속시키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인도받게 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한다. 그러면 그는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산다.

무지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인간으로 이 땅의 삶을 시작하면, 그에게 신적인 일에 대한 모든 이해나 모든 지식이 부족하다. 그는 먼저 신적인 지식을 서서히 소개받아야만 하고, 이웃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와 사역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믿는다면, 이런 이웃사람들을 통해 신적인 지식을 알게 되어야 한다. 그러면 자녀는 이런 믿음으로 인도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웃 사람 자신이 믿음이 없고, 그들의 불신을 자녀에게 전가시키면, 그럴지라도 자녀가 대적자의 권세에 맡겨지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자녀를 직접 돌보고, 그의 삶을 인도하여, 생각이 자극을 받게 하여, 이로써 생각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같은 결과에 도달하게 하고, 그가 자신의 삶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우게 하고, 인간이 이 땅의 삶 동안 수행해야 할 사명과 과제를 믿는 법을 배우게 하면서, 그가 깨달음을 얻도록 돕는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머물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자신이나, 또는 믿지 않는 이웃사람에게 맡겨두지 않는다. 그는 이웃사람을 통한 양육이 실패했을 때, 직접적인 방식으로 그를 깨달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성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들에게 주었다. 사람은 단지 진리 안에 서기를 원하는 의지를 갖으면 된다. 그는 자신을 끌려다니게 해서 안 되고, 스스로 활동해야만 한다. 그는 진리를 알기를 갈망하고, 옳은 일을 행하기를 갈망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그가 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한다.

아멘

**조** 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줄어 든다. 하나님께 가까  
이 가려는 의지가 진지하다면, 의지 만으로 이미 충분하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자  
유의지의 상태에 있는 존재가 자신의 의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하면, 존재를 붙잡기 때  
문이다. 존재에게 이제 힘이 흐르고, 존재는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한다.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가진 사람의 사랑이 일한다. 하나님은 존재가 성장하는 일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단지  
의지의 변화만을 요구한다. 왜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은혜를 부여주기 때문이다.  
그는 혼이 성장할 기회들을 만들어 주고, 사람에게 사랑으로 일하기 위한 힘을 주고, 언제든  
지 사람의 영적인 행복을 생각하면서 그를 돕는 가운데 함께 한다. 이로써 혼이 자신의 마지  
막 물질의 껍질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는 그가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초기부터 하나님께 향해야만 한다. 이  
로써 그가 그의 이 땅의 삶을 모두 활용하고, 가장 풍성한 영적 성공을 이룰 수 있게 되어 한  
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그가 자신을 향하게 해야 할, 가장 높고 가장 온전한 존재에 대한 지식  
이 전해져야만 한다. 그는 가르침을 받아야만 한다. 이로써 사람이 스스로 생각해보는 일을  
통해 영원한 신성을 알 때까지 시간을 잃지 않게 되어 한다. 전달받은 지식을 깊이 생각하고  
검토하는 일이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그러나 아주 어릴 때부터 생각이 영의 영역으로 인도를  
받아야만 한다. 이런 일은 만물의 창조주이자 조성자인 하나님과 그의 의지와 하나님과 인간  
과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사람에게 항상 또 다시 결정할 자유가 주  
어진다.

어린 아이가 이미 자신의 뜻을 올바른 방향을 향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고,  
아주 어린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이미 붙잡힘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그의 위로  
성장이 훨씬 쉽게 이뤄질 수 있고, 그의 훗날의 삶에 더 강한 저항력을 소유할 수 있다. 그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오류인지 결정할 요구를 받고, 그의 이성을 활용하여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그에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주고, 그에게  
깨달을 힘을 준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절대로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이 어렸을 때 그에게 지식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사람은 나이가 든 후에 비로소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리를 위한 그의 싸움은 더 어려워지고, 그가 자  
신의 혼의 행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잃은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이 올  
바른 가르침을 받게 되면, 이는 큰 축복이다. 왜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적자, 두 세력을 모  
두 아는 일이 두 가지 세력들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젊은이  
들이 무지 속에서 살게 하거나 또는 어린 아이로부터 영원한 창조주요 아버지인 하나님을 믿  
는 믿음을 빼앗는 일은 범죄이다.

하나님은 실제 사람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식을 얻도록 인도한다. 그러나 혼은  
훨씬 더 큰 저항을 극복해야만 하고, 혼의 성장이 더 어려워진다. 왜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힘  
을 사용하여 그의 의지로 자신을 생성되게 한 자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필요한 힘  
을 제공받기 전에, 반드시 의지가 먼저 하나님께 향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향한 의

지가 비로소 하나님과의 거리를 줄이고, 존재가 한때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일을 통해 생긴 간격을 남김없이 연결시킨다는 보장을 한다.

아멘

**410** 번 게시에 대한 설명.... (존재의 재형성.... 창조하는 영들의 무리.... 문제들....)

B.D. No. **0428**

1938년 5월 23일

**그** 러므로 이 땅에서 사는 일은 영원한 영역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지나지 않고, 사람이 스스로 항상 또 다시 그 영역의 상태를 정한다. 그가 이 땅에서 그의 삶을 끊임없이 영적인 것을 위해 추구하는 가운데 보냈다면, 그는 저 세상의 삶이 그에게 짐이 될 까봐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는 죽음의 시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는 그에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스럽게 보이는 하늘의 영역과 단지 교환하기 위해 이 땅을 떠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그를 감싸고 있는 겉형체를 전적으로 분해시키는 일을 보장해주는 영의 상태에 도달하려면, 내면에서 하나님께 귀환이 일어났어야만 하고, 가장 높은 존재와 연합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인간의 겉형체는 혼과 그렇게 쉽게 분리되지 않는다. 비록 혼이 이 땅의 몸을 떠났지만 혼이 자유롭지 못하다. 영의 겉형체가 아직 혼에게 붙어 있다. 혼은 전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와 같은 족쇄에 의해 자유롭게 높은 영역으로 올라가는 일에 방해를 받는다. 이런 상태는 그의 이 땅의 상태와 동일하다. 혼은 여전히 같은 무지와 강박한 가운데 저 세상에서 살고 혼 자신이 이미 이 땅을 떠났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 영은 항상 너희와 동등한 영역을 발견한다. 혼이 이미 이 땅에서 성숙한 상태에 도달했다면, 혼은 육체의 죽음 후에 즉시 빛이 충만한 영역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혼은 저 세상에서 이 땅의 상태와 동일하게 이 땅에서 처럼 쉽게 극복할 수 없는 끝없이 긴 투쟁의 길을 갈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전히 저 세상에서 혼을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유혹에 빠지지 말라. 혼이 성장하기가 훨씬 더 어렵고, 활용하지 않은 이 땅의 시간을 깨닫게 되는 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후회스런 일이다.

그러므로 완성에 이르지 못한 공포 가운데 있는 존재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완성에 도달하기 위해 쉬지않고 추구하는 일이, 게으름 가운데 이 세상에서 하지 않은 일을 저 세상에서 할 수 있다는 희망에 빠지는 것보다, 항상 추천할 만한 일이다. 모든 비탄함과 고통을 가진 이 땅의 삶은 저 세상의 온전하지 못한 혼들의 투쟁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이 땅과 같은 가능성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전적으로 너희의 심장에서 분리되고, 그 영이 새로운 빛의 나라로 영접될 수 있는 정도에 도달할 때까지, 너희의 투쟁이 훨씬 더 힘이 들기 때문이다. 이로써 혼이 특정한 성숙의 정도에 도달할 때까지 혼에게 사람의 상태가 부과되는 일을 이해할 수 있다. 아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영적인 동행.

B.D. No. **7189**

1958년 10월 17일

**너** 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삶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인도 받는다. 너희가 저항하지 않고 너희를 돌보는 인도를 따르면, 너희는 확실하게 너희의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하나님의 말씀 - 37/45

그러나 너희의 인도자는 인도를 따르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너희를 정할 수 없다. 그들은 항상 너희를 앞서 가고 너희가 따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항상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보호대상자들이 자신들을 떠나고 사랑이 충만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일을 자주 체험한다. 그럴지라도 보호대상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머물지 않게 된다.

그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존재가 그들에게 항상 또 다시 경고하고 권면을 해서 그들이 언제든지 다시 영적인 존재들의 보호 아래 거할 수 있고 그들의 자유의지로 경고과 권면을 들으면, 안전한다. 이제 적진의 공격자들이 사람들이 저항하게 자극할지라도 사람 자신이 이에 대한 저항을 포기할지라도 사람들을 보하는 보호자의 사랑은 이 땅의 모든 삶의 기간동안 계속 되고 항상 단지 그들의 구원을 생각하고 올바른 삶의 방식을 갖게 하나님의 의지를 성취하게 확실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목표에 도달하게 해주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한다. 즉 육신을 입는 초기부터 육신이 죽을 때까지 그들에게 도움이 주어진다. 그럴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다.

왜냐면 의지가 자유하기 때문이다. 의지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자신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그가 다스리는 곳으로 사람들의 보호자가 사람들을 인도하기 원하는 영적인 재물보다 더 많은 호응을 얻는 하나님의 대적자의 재물을 팔려고 내놓는 곳으로 더 많이 향하기 때문이다. 사람 자신이 무엇이 자신의 소유물이 될지를 결정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쉬지 않고 돕고 유일하게 그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재물을 그에게 제공한다. 사람은 이 땅에서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왜냐면 그가 대적하는 세력으로부터 공격받고 유혹받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영의 편에서 도움을 받기 때문이다.

그 자신이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다. 그가 자유의지로 스스로 유리한 위치와 불리한 위치를 만든다. 이를 통해 그는 그가 어떤 정도의 저항을 하는지 나타난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관계를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성장 정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그는 언제든지 단지 그의 의지가 준비되었으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왜냐면 그를 돕는 자가 사랑과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그 곁에 함께 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의지만이 유일하게 돕는 자에게 행동력있게 개입할 권한을 주고 그의 구원은 보장 된다.

아멘

교육자의 책임. 진리를 향한 사랑.

B.D. No. 2536

1942년 11월 3일

**양**육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맡겨진 혼들을 오류에 빠지게 하는 일이 그  
**양**가 엄청난 책임을 져야만 하게 만든다. 그가 가르치는 일을 행하면, 그는 또한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을 완전히 확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지식을 이웃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다. 이는 특히 영적인 일과 관련된, 다시 말해 혼을 양육시켜야 하는 가르침에 해당된다.  
그가 이런 가르침이 진리임을 확신한다면, 그는 또한 자신의 확신을 대변할 권리가 있다. 그  
러나 확신을 갖기 위해 그는 진리 안에 서려는 전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고, 가르침에 대한 입장을 취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또한 그의 가르치는 직분에 대  
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가르치는 직분을 행사할 때 자신  
이 아는 최선의 지식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지식이 진리임을 완전히 확신하지 못한 채, 자신이 받은 대로 단지 지식을 전하  
면,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의 왜곡된 생각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가 어떤 면에서 진리와 아주 거리가 멀 수 있는 지식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그런 지식을 감시해야만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는 오류나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단지 혼란스럽게 하는 가르침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그가 양심  
적으로 관리해야 할 그의 직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자신의 도피처로 삼는다  
면, 이로써 그가 하나님께 보호해줄 것과 도움을 청한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께 자신에게 맡  
겨진 사람들의 혼들을 오류나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보호해주기를 의탁한다면, 그는 안심하고  
자신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책임을 의식해야만 하고, 순수한 진리를 대변하기를 원해야만 한다. 그러면 하  
나님은 그의 의지와 그의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강하게 할 것이고, 그는 단지 자신이 완전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이로써 그가 진리로 인정하는 것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  
님과 긴밀하게 연결을 이루고, 도움과 축복을 구하는 일이 가르치는 사람에게 특별하게 중요  
한 이유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가 하는 일을 축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진리 안에 거하는지, 언제 진리 안에 거하게 됐는지 전적인 깨달음을 주지 않는다면, 그  
의 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학생들의 구원도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가 언젠가 책임을 져야만 하고, 그가 진리를 선포해야 할 혼들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물을 것  
이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는 인간으로써 전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시작한다. 혼은 아직 영적인 어둠에 쌓여 있다. 왜냐면 혼이 이제 혼을 둘러 싸고 있는 두꺼운 겉형체를 분해할 수 있기 전에 혼이 먼저 자신을 의식하는 단계에 이르러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럴 때 혼이 자신이 특별한 지식을 가지지 않고도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다.

혼은 이미 아주 어린 시절부터 특정한 지식을 따라 행동하지 않더라도 자신 안의 선한 느낌을 발산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항상 자기 자신을 의식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생각과 행동은 평가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어린 아이는 일찍부터 자신 안에서 사랑의 불씨를 키운다. 이는 좋은 일이다. 왜냐면 이는 내면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어떤 어린 아이는 자기를 의식하는 같은 상태에서 잘못 된 행동임을 자신 안의 작은 느낌으로 알지라도 그러나 나쁜 충동을 따른다.

두 가지 경우 둘다 지식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랑의 불씨는 모든 사람 안에 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의 초기의 행동이 서로 다른 것은 그들의 혼이 내면의 자극에 대한 서로 다르기 대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어린이들은 자신 스스로를 의식하는 단계에 이미 도달했으면, 이것이 선한 행동인지 악한 행동인지 안다. 이제 이 어린 아이에게 서서히 지식을 전한다. 어린 아이는 질서의 법칙을 배운다. 다시 말해 그는 질서의 법칙을 항상 더 많이 이해할 것이다. 그는 자신 안에서 무엇이 선하게 역사하고 무엇이 악하게 역사하는지 체험할 것이다. 그는 이제 선과 악의 개념을 배우게 된다.

성장한 사람들은 이제 다시, 그들이 스스로 자신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고 자신의 내면에서 오는 영향을 받아 들이는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반응한다. 이에 따라 깨달음이 성장하거나 또는 초기의 혼의 눈이 먼 상태로 남는다. 왜냐면 외부에서 사람에게 전해진 지식은 아직 그가 깨달은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 사람 안의 사랑이 지식을 생명력 있게 만들 때 비로소 깨달은 것이기 때문이다.

지식이 실제 이성을 채울 수 있지만 이 지식은 사람의 혼을 밝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단지 착각하게 하는 빛으로 남는다. 그러므로 혼은 계속해 겉형체에 둘러싸여 있다. 그러나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점은 그가 자신을 의식할 때이고 자신 안에서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이고 그 안에 선과 악에 대한 감정이 깨어났을 때이고 깨어나는 일은 어떤 어린 아이에게는 일찍 또는 다른 아이에게는 늦게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일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만 하게 되기 위한 선행조건이다.

이런 혼의 연약함은 항상 일찍이 세상의 삶을 마쳐야만 하는 책임을 지고 항상 성장 정도가 고려되고 지금까지 그에게 주어진 지식이 고려 된다. 왜냐면 충만한 깨달음은 사랑으로만 비로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충만한 깨달음이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사랑에 따라 평가받는다. 이 사랑은 모든 사람 안에서 지펴져 화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의 불씨가 꺼지게 할 수 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활용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의식하고 사랑을 행하지 않으려는 자신의 악한 혼에 합당하게 자신의 의지를 활용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지식에



자신을 달는다면, 그러므로 깨달음이 이런 내면의 악한 충동을 제거하지 못하면, 항상 나쁜 생각과 행동이 겉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어린 아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이런 악한 충동을 버릴 수 있다. 그러면 양심이 들을 수 있게 소리를 낸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아주 큰 책임이 있다. 부모는 자녀 안에 사랑이 깨어나게 모든 일을 해야 하고 작은 도움을 주는 일을 통해 이 일이 지속되게 해야 한다. 이로써 어린 아이 안에 도우려는 자세를 길러줘야 하고 모든 이기적인 충동을 그 안에서 제거해야 한다.

왜냐면 사랑의 불씨가 단지 지퍼지면, 불씨는 퍼져 나가기 때문이다. 혼은 더 이상 흑암 가운데 갇혀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불씨가 스스로 그의 심장 안에 빛이 될 것이다. 어린 아이의 생각과 행동은 이제 의식적이 될 것이고 그에게 곧 깨달음의 빛이 빠르게 임할 것이다. 그에게 이제 상응하는 지식이 주어질 것이다. 왜냐면 사랑이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사랑을 행할 능력이 있다. 왜냐면 하나님 자신이 모든 사람이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 자신의 일부분인 불씨를 모든 사람 안에 넣어 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만 한다.

B.D. No. 8496

1963년 5월 14일

**사**람은 자신의 이 땅의 삶과 그의 말과 생각과 행한 것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져야만 한다. 왜냐면 그는 나로부터 이성을 생각하는 능력을 선물 받았고 그러므로 모든 것을 내 뜻에 합당한지 헤아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별히 그의 이웃들에 의해 그에게 전해진 영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가르침에 대한 그의 자세에 해당이 된다.

왜냐면 그에게 세상적인 어떤 것이 전해지게 되면, 그는 자신의 생각을 여기에 두고 그가 이로부터 어떤 유익을 예상할 수 있으면, 큰 열심으로 영접하거나 또는 거절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에게에는 생각하는 능력이 있고 그는 이제 이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

그에게 이제 영적인 내용이 전해지면, 그는 정당하게 영접을 하거나 거절할 수 있기 위해 내용을 시험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는 단지 그에게 조언을 해주는 이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 이에 대한 자세를 정해야 한다. 왜냐면 이제 그 자신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는 그에게 생각 하게 행동하게 조언을 해준 이웃에게 죄를 전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의 생각이 올바른 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는 나 자신에게 향하는 길을 택해야 하고 그들의 생각이 마찬가지로 잘못될 수 있는 자신의 이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웃들이 자신의 관점의 따르게 이웃에게 역사하여 그들이 저항하지 않고 그가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영접하게 만들어야만 하는 부름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큰 불의를 행하는 것이다. 사람은 실제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항상 그가 가르침을 영접할지는 그에게 자유롭게 돼야만 한다.

왜냐면 사람은 스스로 결정해야만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가르쳐 준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가르치는 사람이 절대로 사람에게 가르침을 영접하게 정할 수 없다. 의지의 자유는 한 사람이 완성에 도달하기 위해 결정적인 가장 큰 요소이다.

모든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일은 내가 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 불의이고 죄이다. 가르치는 사람 편해서 먼저 사랑의 계명을 강조해야 함을 단지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요구해야 함을 다시 알려 줘야만 한다. 왜냐면 그러면 사람의 생각이 밝고 선명하게 되어 진리 된 것과 올바른 것을 깨닫고 그러면 사람이 스스로 이를 위해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가르침이 진리에 합당하다 할지라도 사랑의 삶을 제외시킬 수 있는 가르침을 영접하는 것은 절대로 영적인 성공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어디에 진리가 있는지 어디에 오류가 있는지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에 가서는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심장의 사랑이 결정을 한다. 이것이 부족한 곳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거부하지 않고 가르침을 영접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면 이 가르침은 혼에게 전혀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가장 먼저 외부로부터 사람들에게 전해진 영적인 내용에 대한 입장을 생각으로 정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에게 이제 사랑의 가르침 전해졌다면, 그는 이 가르침에 관해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이미 작은 빛이 그 안에서 밝혀지게 된 것이다. 그는 사랑을 실천하게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일 만이 혼에게 성장을 준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웃에게 사랑을 하게 자극하지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럴지라도 저항을 하지 않고 이를 영접하고 인정하라는 요구와 함께 영적인 내용을 전하는 사람은 내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면 그는 이미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것을 게으르게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책임을 면하게 되고 이 책임을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변명은 언젠가 내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었고 이 능력은 이제 혼의 구원에 관한 일이라면 사용돼야만 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모든 세상적인 일이라면, 너희를 위해 유익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유익이 될 수 있는지 이 생각할 능력을 사용을 한다.

어떤 사람도 언젠가 너희 책임을 대신 져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사람에게도 너희를 정하는 권한을 주어서는 안 된다. 왜냐면 만약에 너희가 위로부터 너희에게 들려주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보내주는 내 말을 들으면, 이에 관해 나로부터 빛이 너희에게 주어 지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강요를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항상 단지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이유를 제시해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항상 내 말을 영접할지 또는 거절할지 자유로운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 자신의 완성에 이르게 되길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거짓 된 것에 대해 너희에게 설명해줄 것이다. 이로써 너희가 이웃들의 의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게 정함 받지 않게 하고 너희들 가 먼저, 너희 모든 사람을 자신과 자신의 혼의 구원을 위해 책임을 져야만 하게 창조한 내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는지 올바르게 생각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게 할 것이다.

아멘

자기 자신과의 싸움. 정욕과 욕망을 극복하는 일.

B.D. No. 6127

1954년 12월 6일

**너**희가 너희 혼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면, 너희의 육신을 죽여라. 이 말은 너희를 고자로 만든다거나 스스로 자해를 가하면서 너희 육신에 해를 가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런 행동은 단지 너희의 부족한 이해심과 오류에 빠진 인간적인 생각을 나타내주고 내가 창조하여 너희에게 준 것을 존중하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작품을 존중하지 않는 일을 의미한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일은 너의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일이고 너희가 너희 자신을 극복하는 일이고 너희가 너희 혼에게 아주 큰 해를 끼치는 단지 육신의 안락함을 원하는 육신의 정욕을 성취시키지 말라는 의미이다.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일은 진실로 어렵고 이를 위해 전적인 의지가 필요하고 자유의지로 절제하는 일이 요구되고 너희에게 자극을 주는 것들을 스스로 거절하는 일이 요구 된다. 이 싸움을 위해 너희에게 힘이 필요하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에게 온전함에 도달하려는 진지함이 있고 실제 온전하게 되는 이 땅의 목표에 도달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 힘이 너희에게 주어진다. 왜냐하면 너희 온전함은 너희의 혼의 상태에 달려 있고 육체의 상태에 달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육체와 육체의 정욕은 너희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는 기간에는 육체가 앞장을 서고 육체는 모든 요구들 가운데 자신의 요구를 우선시 하기를 원한다. 육체의 모든 소원과 욕망은 혼의 소원을 거절하기에 적합하다. 육체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의 의지를 움직여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혼은 자신을 공개적으로 나타낼 수 없고 생각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낸다. 그러면 이 생각은 재 빨리 다시 물리침을 당한다. 이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혼을 위해 육체를 등한시 하려면, 아주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사람이 육신의 정욕에 대항해 싸워야만 하고 혼을 만족시키지 않고 육체를 만족시키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싸워야만 한다.

이를 위해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 자신과 너희 정욕에 대항해 싸우는 싸움을 요구한다. 이런 일은 혼이 단지 육체에 대항해 싸우는 일이다. 그러나 혼은 사라지지 않는다. 혼은 언젠가 자신의 성장 정도에 맞는 운명을 짊어 져야만 한다. 사람이 육체를 먼저 생각하고 혼에게 게을리하면, 그의 성장 정도는 아주 낮게 된다.

너희의 정욕에 대항하여 싸우라. 너희의 육체를 죽여라. 육체에게 단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만 제공하라.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너희의 혼을 위해 주라.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육체보다 단지 혼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둘 때 혼이 성장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싸움을 축복할 것이다. 처음에는 실제 너희에게 전적으로 강한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자신을 극복하면 할수록 또한 점점 더 쉬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너희

가 스스로 진심으로 극복하기 원하면, 내가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너희에게 힘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안전하게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아멘

올바른 사랑은 생명이다.

B.D. No. 6311

1955년 7월 14일

**질**서의 법칙은 사랑이고 축복의 본질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원래의 입자는 사랑이다. 이런 법칙에 복종하는 모든 존재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것이다. 이는 힘을 소유하고 진리의 빛 안에서 서는 일을 의미하고 자신이 신적인 존재로서 최고의 지혜로 창조하고 형성할 수 있고 세계와 그 세계의 거주자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일을 의미한다. 이 세계는 사랑을 통해 온전해진 사람에게 그가 구원하는 의미로 이제 일하도록 맡겨지는 세계이다.

온전함은 단지 사랑으로 도달할 수 있고 온전하게 된 존재는 원래의 원천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빛과 힘을 중단 없이 받게 된다. 사람이 이런 온전함에 가까이 도달하지 못한 동안에는 이런 온전한 상태를 이 땅의 사람들에게 유사하게라도 묘사해줄 수 없다. 그는 아직 이 땅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사랑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사랑을 행하도록 강요당하지 않고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온전하게 되는 목표를 추구한다. 왜냐면 그들의 잘못된 사랑은 그들이 온전하게 되는 목표를 추구하는 일을 막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잘못된 사랑이 빛과 어둠 사이의 장벽이고 행복과 고통 사이의 장벽이고 힘이 충만한 상태와 전적으로 연약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사이의 장벽이다.

사랑이 아직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빛과 힘이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잘못된 방향으로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대적자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 가는 일을 막는다. 즉 사람들이 힘의 원천에 접근할 수 없게 한다. 그릇 된 사랑은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사람들을 병들게 만든 유전 된 악이다. 사람들이 한 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까지는 이런 유전 된 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한다. 이 한 분은 사랑을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했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따르도록 요청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랑을 어디로 향하게 해야 하는 지를 가르쳤고 이 땅에 살았을 때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사랑을 행하는 모범을 보였다. 그는 사람들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을 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생명은 빛과 힘을 소유하고 최고로 행복한 가운데 역사하고 창조할 수 있게 되는 일을 의미한다. 왜냐면 영원한 생명의 원천에서 이제 사랑을 통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된 존재에게 끊임없이 빛과 힘이 흘러가기 때문이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런 힘의 원천이 이제 너희에게 개방되었다. 그러나 너희가 이제 힘의 원천에 도달하기 위해 너희가 스스로 사랑을 행해야만 한다. 힘의 원천은 이제 계속해서 너희를 먹이고 너희에게 축복된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러므로 자기 사랑에 맞서 싸우

라. 이런 사랑이 너희에게 단지 죽음을 주기 때문에 그런 사랑에 대항해 싸우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가 그가 설교한 사랑의 삶을 살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의 힘과 너희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구하고 그에게 속하고 그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의 이 땅의 길은 생명의 계곡으로 안전하게 인도받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아직 하나님의 대적자의 사슬 아래 있는 동안에는 타락한 존재인 너희에게 부족한 힘을 너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이 사슬에서 풀어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하나님께 향하는 길로 인도할 것이고 그 자신이 이미 이 땅에서 이룩한 하나님과 최종적인 연합을 이루도록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인간 예수는 이 땅에서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들을 위해 고통을 당하고 죽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이제 거할 수 있는 걸형체로 자신을 형성했다.

아멘